朝鮮日報

社說

僵屍六名 (一)

僵屍! 凍死! 人間의죽엄이 가지各色이라고하지만 이얼마나악착한죽엄이랴 奚奚한房안에서 배불니먹고한平生을지내다가할수업는病에 죽엄을짓는다하드래도 人間의情緖는 그에게오히려눈물을보내거든 한줌에밥과 한자리에이불이업서 零下二十度라는酷寒에 文化的惠澤을자랑하는 繁華한거리에서 最後의숨김을끈케된다함은 悲慘을意味하는그어더한形容詞가잇다하드래도 이것을表現치못할것이다 그런데 三十萬人口가 채못되는善人의京城은再昨日하로밤사이에 西大門管內의三名을爲始하야 그알게된것만하드래도 六名以上의 僵屍나보게되엿다고하니 이얼마나慘劇의絶頂을意味하는것이랴

二

三十萬人口밧게안되는 所謂現代都市로서 하로밤사이에六名의僵屍나보게된다는것은全世界에오즉이京城市街가잇슬뿐이라고보이니그것도또한醺酒氣分에醉하야 새해를자랑하는 南部一帶의 京城에비하야 北部一帶의 京城에서난것이라고할때 鮮人이 居住하고잇는 北部一帶의 京城에서난것이라고할때 吾人은 그무엇을 말할것이랴 앙상그러진 北岳의草木이 겨울의凋落을 意味한다는것처럼 악착한이事實은 京城市內의우리네現實을意味하는것이며 거듭치는모든災禍에 最後的暗澹을聯想케하는 半島全民族의現實을意味하는것이라고 안부르지즐수잇슬것이랴 最後의挽歌조차 마음엣노래부를수업는昨今의生活苦를살펴볼때 人間으로서의 이가튼最大苦痛을 엇지어삼키며 압길을올코나갈者그얼마나될른지? 企待라는니보다도 쓰라린부르지즘이잇슬따름이다

敎科書代減下 反對問題 (一)

이미本欄에서 論한바도잇섯지만 現下朝鮮普通敎育實情에잇서過重하다고안볼수업는敎科書價格問題는 발서부터 적어도日本國定敎科書減下率에 못지안케減下함이至當하다고 此方面에잇서 輿論化된것이事實이다 그런데 昨日報道에 依하면 日本에서는 발서新春부터 國定敎科書價格의 二割減下問題가 그實現을보게까지具體化된模樣이요 朝鮮當局者도 이에順應코저 調査와硏究를거듭하는中이라는데 이에조음하야印刷會社側에서 朝鮮의特殊關係와 會社自體의經濟力을云爲한後 相當히强硬한反對意見을主張하는同時 當局에陳情까지한模樣이라고傳하니 이얼마나怪한일이랴

二

이제그들의主張을살펴보건대 것흐로는 아모리特殊關係를云謂한다고傳하지만 其實自體의利益이 以前보다얼마쯤減少될에起因하얏슬것이事實인바 이것은 너무나自家의利益만을爲한것이요 朝鮮人의一般現實과그로부터우러나오는 輿論을無視한것이라고 안볼수업스니 暫間하드래도 印刷上實地問題로살펴본다면 敎科書價格이 그實價에잇서最高十二錢밧게넘지안는것이事實이라고하야 只今外지그배의不少한利益을본되엿든것이다 엇어케日本과맛찬가지로 敎科書代를二割減下한다드래도 印刷會社側으로는 그印刷技術上의加減如何로는 一割五分內外의利益을取할것이事實이어든 그네의所謂反對란 이얼마나無理한것이랴 當局으로서는 이들의反對에迷惑할理는업스리라고 보지만 特히一言의注意를두는바이다

駐中外軍에對하야 今年中에!撤退要求

먼저實情을調査한後 近近各國에交涉照會

(上海六日發) 外交部는今年中에中國에駐屯한外國軍隊의撤退를各國에要求하기로決定하고近近行政院會議의議決을承한後各國에對하야交涉開始를照會하기로되엿다 그와同時에外交部는 各省政府에各地駐在의外國軍隊及警官隊에對하야調査하도록日中에命令할模樣이다 此는外交部今年度事業中內河航行權回收와함께二大政策으로되야잇서今年의對外交問題의重要한一項目이될模樣이더라

佛國과伊太利도 治外法權撤廢反對

米國과同樣으로서로前後하야 强硬한抗議書를提出

(南京六日發) 治外法權撤廢에對하야米國은맨먼저拒絶하얏는데佛蘭西도亦是國民政府에對하야强硬한拒絶回答을보내엇는바그大要는左와如하더라

中國에잇서가지고잇는我國의法權은佛中通商條約에基한것으로我國은아즉도條約의範圍를超越하고或은貴國의法權을侵害한것이업슴은歷史의證明하는바이다 그리고我國政府는貴國이漸進的으로法權을撤廢함에對하야貴國의法典이完備됨을條件으로서原則上贊意를表하는바이다 그런데貴國의法典司法制度의現狀은一九二四年의法權會議의報告를아즉도滿足시길程度에일으지못하야잇다 我國은今次貴國이突然斷乎한態度를宣布함에對하야遺憾이나아此를承認할수업다 玆에特히中佛條約文上에規定된一切의權利及貴國에在留하는我國人의生命財産上安全을保有할것을宣明하는바이다

(北平六日發) 佛國의治外法權撤廢抗議에이어伊太利도四日附로서國民政府에反對抗議를提出하얏다 中國은伊太利에對하야서는日本과同樣條約滿期國으로서通告치안햇는데伊太利는舊條約을法律上有效한것이라는見解로서中國의治外法權廢棄宣言을承認할수업다는旨로抗議한것이더라

米國은엇외지 保留의態度

다시交涉할터이나 그래도狼狽의氣色

(南京六日發) 官邊入電에依하면駐米中國公使伍朝樞氏는過日華府에서新駐中公使「존손」氏와會見하고治外法權撤廢에關하야協議한結果를報告하얏는바그報告에依하면

米國은最初中國側에與한言質을翻하고現行條約中에規定되어잇는一切權利를留保할旨의强硬態度를表示하고잇슴으로國民政府側에서는자못意外의感이잇서狼狽의氣味가잇다 右에對하야一部에서는「존손」氏着任後에英國과가티豫備會議를開하야볼터이라는바米國의强硬態度의眞意에對하야서는各方面에서注目하고잇는터이더라

日本을眼外로 關稅自主實行

英米의諒解를방패로 엇더한反對라도不聽

(上海六日發) 國民政府는國定稅率制定關稅自主를急히하야二月一日부터實現을期하고잇는바關稅自主에對하여는英米가이미諒解하고日本만은昨年矢田總領事當時二十七種差等新稅率(現行稅率)을認定한것뿐으로서關稅自主에對하여서는何等諒解가업는터인바國民政府方面의意嚮은依然强硬하야英米其他의諒解를방패로日本의反對等은度外視하고自主를實行할態度이며 더욱國民政府는日本과의交涉에는互惠條約其他日本側의主張을어듸까지든지退却하라고하는것이明白한바인故로此問題도또한압흐로紛糾를免치못하리라고觀測되며關稅自主實行에對하야서는中國自身對內的으로도또한準備가遲延되지못한點도잇슴으로國民政府가今後自主實行에對하야如何한手段을講究할는지二月一日도臨迫한今日에잇서더욱注目되더라

『치체린』氏 療養地에서歸還

(莫斯科六日發) 勞農政府外

漸次로露骨化하는 中國의滿鐵抑壓策

各線과連山灣과를連結식히고 運賃割引—稅捐低減

(奉天七日發) 日本의滿蒙에對한勢力驅逐策의核心은滿鐵의交通上占領하는勢力削減에잇는바中國側의反滿鐵的交通政策은近年漸次그度를加하고잇스니張作霖沒後의東北當局은더욱그計劃에專念하고잇는바打通、吉海等新線의完成은一層이를刺戟하야最近이意圖는漸次露骨化하야그實行機關인東北交通委員會는그第一步로大連에對抗하야連山灣築港을實行에着手하기로決하고그對象으로는一은北滿重要物産類에他는吉海、奉海兩線의沿線物産類에着手하여서滿鐵을挾擊하라고하는바北滿産大豆其他의收攬에對하여서는爲先昨年新五十萬噸을齊齊哈爾를中心으로하여齊克線에集中하야이를打通線經由南下連山灣에吸集할計劃으로目下着着準備中인바右는白系露人으로서元東鐵長官이오東北交通委員會顧問이든「오스트로모푸」氏의建言에依하야該港의修築, 商埠地의開設에要하는費用中約二千萬元은英國銀行團과의間에借款契約을交涉中인바相當히可能性이잇는것가트며또一便吉海、奉海兩線方面의穀類輸送에對하야서는先般來吉林遼寧兩省間에서協議한結果吉海線經由의穀類에對하야入境稅를免除하고滿鐵線에出廻를防止하는等그一端이窺察되는바다시京奉鐵道局長高紀毅氏는同局內의業務改革때문에改進委員會라는것을組織하고業務改善의硏究를하는同時에吸貨政策으로運貨割引及稅捐低減等에對하야目下奔走中인데穀類運貨은連山灣、天津方面에 到着하는것에 對하여서는二割五分營口에到着하는것에對하여서는三割의割引을하야十二月一日부터實施하고잇는바더욱高京奉局長은運貨及稅捐低減問題에關한意見을徵한다는名目으로治線各縣의商務總會長及主되는糧棧을天津의同線貨辦局에糾合하야十二月十六日부터五日間商務會議를開催하고百五十餘名의出席으로자못盛況을보였는바이와가티對滿鐵政策이此等의方面에實現될때에는滿鐵에서밧는影響은莫大할것으로打通線이目下日本의抗議中에잇는만치그前途는자못注目되더라

莫東鐵新督辦을 中露交涉全權에任命

◇廿日以內莫府에向發

(奉天六日發) 莫德惠氏는本日正式으로中露交涉全權에任命되어二十日以內에莫斯科로向發키로되고黎運升氏는莫氏의後任으로서東北政務委員에任命되엇더라

英國側辯解

撤廢는免치못할터로 英政府의措處는無害

(東京電) 昨年末英國이列國을에先하고國民政府와의間에治外法權撤廢에關한公文書를交換하얏슴은列國의對中協調를亂하야中國으로하야금益益其長시키는것이라는非難이잇슴에對하야英國政府는다음과가티辯明하고잇다더라 即

一、治外法權撤廢는免치못할것임으로英國政府는어듸까지든지此를無害한것이라한다

二、廢棄聲明後中國地方官憲이英國人을中國의裁判에附할수잇는것이라는그릇된觀念을갓지안토록中國으로하야금適當한措置를取케함을目的한것으로第一로는右가列國의對中政策을破壞하는것이라는批評은見解의相違로英國은法權撤廢는못하지만中國의法權完備를기다리지안이하는바그過渡的임을要한다는趣旨는充分히中國에注意하엿고 第二로는中國에多少英國側의法權을蹂躪함과如한事件이잇슬것을豫想하고잇스나大體에잇서法權의完全한撤廢는英、中條約의完成을기다린後일것을中國側에徹底시킴에努力하고잇다고하더라

「日、土의當時보다 中國은훨신完備」

◇治外法權撤廢反對에對한 立法院長胡漢民氏의辯明◇

(上海六日發) 領事裁判權撤廢宣言을發한以來國民政府及黨部에서는必死的으로宣傳에注力하고잇는데立法院長胡漢民氏는左와如히語하더라

列國은中國의統一이되지못한것, 黨內한政府가成立되지안흔것及法令, 裁判所, 刑務所의不完備한것을理由로反對하고잇는데此는모다理由가되지안는다 即國民政府의基礎는鞏固하고列國이關稅自主를承認한것으로만보더라도明瞭하고또國民政府는이미民法總則, 債權, 物權, 親族法, 商事法의民事訴訟法, 會社法, 海商法, 保險法, 刑法, 刑事訴訟法의改良, 裁判所의改造等이미완한것이잇다 今日의中國의狀態는日本이나土耳其가治外法權을撤廢한當時에比하야훨신完備되어잇다 日本, 佛蘭西等이萬若反對한다면全然안된다고하지안는다

七十三名增加의 二百四十六名이

與黨側의總選擧豫想

(東京電) 政府及與黨에서는此際모든解散斷行을一擧하고休會끗난後議會에서勝頭政府의主張을明白히하는同時에反對黨側의主張을드른後憲政常道에依하야一擧에解散을斷行키로되엇는바選擧對策으로서는公認候補約三百名에擴張하야選擧를行하고그結果約二百四十六名(現在보다七十三名增加)의絶對多數를獲得할수잇스리라는成算을엇게되엿는데與黨側의調査에依하면增加되는關東十四名, 東北北海道十一名, 北陸五名, 東海九名, 近畿十二名, 中國六名, 四國五名, 九州十一名計七十三名이增加되리라고觀하더라

政友會側도 解散을覺悟

總選擧準備에全力 ◇幹部會에서一致

(東京電) 政友會는六日午後一時부터本部에初幹部會를열고二十日의黨大會의準備에對하야協議한後政局에對하야觀測한바잇섯는데政府는憲政本位로周圍의事情에不拘하고어듸까지든지休會끗난劈頭에서解散을斷行할方針으로準備하고잇는模樣임으로我黨도何等의事情變化如何에不拘하고解散에應할準備를하는것이政友會가總選擧의結果를期待하고잇는가를窺察하기에足하다고생각하야此機會를타서政友會에根本的으로打擊을與할것이라고하야濱口首相以下各閣僚는勿論與黨도함께解散에向하야精進하고잇는바다만여긔多少解散의暗影을주고잇는것은財界의一角으로金解禁의關係上되지안흘것이라고하야濱口首相에게報告한것이나假令非止職掃에게在稱이잇다고할지라도職任이容易히여기를두지는안을것이며그리고또解散論이돈허졋다고보아도되엇다고할만치解散의機運이來하야잇스며政府與黨의形勢大體가漸漸히好調로解散에向하여크게得意하고잇는것만큼政友會가이에對抗코저하는것은自然의勢이다 現在數의彼我의位置가바뀌게되지나아니될는지要請될만큼政友會內에서도總選擧에當하야何如間新選擧의勝利를期하고잇다 다만消極的으로흥디가리고瓦全을顧하는大衆의心中에는大蔡老의當然視하는者가만타 政府與黨은 …… 하야忘却하는態로冷笑를바다마지하는모양이더라

004465

死刑廢止案

刑法改正委員會의 各委員間에具體化

(東京電) 司法省에서는目下泉二刑事局長을中心으로하야刑法改正委員會를繼續審議中인바右委員會를中心으로徹底的인死刑廢止論이擡頭하엿는데大審院西村檢事、宮城檢事、東京控訴院須賀部長、東京地方裁判所部長判事等도死刑廢止論者로써덜지아니하야世論를喚起하야死刑廢止의機運을醞成할模樣이며死刑廢止論者는死刑廢止의法律案으로써左記代案을가지고잇슬것이라더라

一、死刑囚를徹底的의無期懲役에代科하고生前平獄內에勞役식힐것

二、그囚徒의全收入은그三分의一을前傷害被害者에게給與하고被害者는加害者로부터受한恩誼를永久히受할것

三、殘部三分의一은囚徒에給與하고國家賠償府金에依하야萬一假出獄을할시에는給與하며殘額은國家에刑罰費用에充當할것으로서被害者는國家의機關을通하야生前犯罪의報償을得하야 그一部를補充키우기로되어이것이實現되기를希望하고잇더라

選擧廓淸案 七日閣議에上程

(東京電) 政府는七日閣議에서安達內相主唱의選擧廓淸의具體案을上程하기로決議하엿스나그名稱은「選擧廓淸委員會」라하고會長에는濱口首相、副會長에는安達內相을推選하야學者、貴族院議員을選하야諮詢할터인데諮問은될수잇는대로急速히進行決定하야그中의一、二項目은來總選擧에도適用하리라고하는모양이더라

世界最大記錄의 佛國靑年飛行家

(巴里五日發) 「쏘코、코산」이라는佛國飛行家는飛行時間合計六千五百三十三時間에達하야世界最大의飛行記錄을가지고잇다고今回佛國飛行俱樂部에서公認하엿다 氏는操縱士의免許를어든後十二年에되야今日까지一萬人의乘客을運搬하엿스나一回의事故도일으키지아니하엿다 또巴里、倫敦間을一時間三十七分으로날은記錄을가젓는데最近三個月間에는二百二十五回의定期飛行을하엿는데一分이라도遲着된時間이업섯다더라

國際情勢大觀 (七)

一九二九年

安在鴻

東方叛逆篇

「東方의叛逆」! 이것은 歐洲白色人에對한 東方有色人의不平이라는 漠然한種族的感情은아니오 실상은歐米의帝國主義列國의支配에對한 多數한植民地半植民地의人民들의 堅確한反抗그것이다 그럼으로『東方의叛逆』은 決코西洋에對한地方的의問題가아니오 모든帝國主義國家에對한 民族的및階級的의反抗을意味함이다 帝國主義列國의 相互矛盾에依하야새로히生長되고잇는 新戰爭의威脅에對하야 二三의注意를加한吾人은 이제東方的인弱少民族의反抗的動向에關하야 幾分의一瞥을要할實務가남엇다 다만이보다먼저國際政局의其他의情勢를한번더 論할必要가잇다

獨裁의破綻

保守黨의敗退、勞働黨의執政이 世界政局에 어써햇든一脈進步的의氣風을널으킨것은明瞭하나 獨裁的인「다만下野」(다만下野이다)와 씻다르되오」內閣의出現한佛國과 獨裁的인「스트레제만」의偶然한逝去로서「그루유스」外交의未確立및그에因한「영案」反對의一般投票外지간獨逸과 又「파스시티」黨의擡頭에對한 耳義皇女와 結婚하는그의皇太子에外지 非常한手段으로나오게된伊太利의政情等은 모다 緩和或은 그組呪를맛든 傾向으로되엇다 이턴인白色獨裁의 動搖傾向은 그들이一定한 階段에外지『成熟』된것을意味하는 同時그都市의諸機構의 强固됨을이야기함이다 그러나그는結局資本主義安定의度가 우선 그들로서의 小康的인安心을엇게하엿나고보아야할바이다 『영』案反對의一般投票를시작한 獨逸의國權黨的인 一部國民이 冷靜한理智的인 自家의地位着察로不利한大勢에서 勝算업는騷動를廢棄하기에留意한 多數國民의意思를 諦觀하기에는가지못하엿스나 一時四百十三萬의有權者가 『영』案反對의署名을한것만은 戰敗後十年에

臥薪嘗膽

오히려그膨湃한不滿을 억지못해하는氣概를보기에 充分하다

例의伊太利『파씨슴로바키아』와 與地利와가튼 모다獨裁或은獨裁的이엇섯고 與地利와가튼者는昨冬에잇서서 새로히그獨裁를合法化한者이오 波蘭은腕相『필스도스키』一派를擁하야더욱더욱獨裁化하려는者이니 이및제國民은或은毆除의擁依한態에서 或은거우新興한 아즉도興盛한狀態에서 더욱그集權과合致도 그異常的인勢力을排除하고 그緊迫한軍國的의動作에便宜케하자함에因함이오 倒을除한外의 大小의諸國家에는英佛兩國이 各각그一定한後見的의『근로』을하고잇는것을看過하야서아니될바이다 그러나

佛 獨 伊數國을除한外의

大小諸國

民은 여러가지意味로中間的 或은從屬的地位를벗지못하는것이다 그리고軍縮問題와및그反映의外에正常的으로보아 歐米의政局그自身은 大體平穩한今一年을가질것이 預斷되는데 오즉問題될것은全東方의叛逆的인 諸民族의運動그것이다

埃及人의反英的民族運動이昨今에와서는 다시平穩한過程에들어잇는것이事實이나 그러나그의自身이 어떠튼 一國家의形態를保有하야 緩急을應에불을餘裕가잇스니 英帝國이全然히依存의 資源으로우러를는印度에의 通路에잇서 英帝國의最後의

發惡的인

國際力의準備가 全速力으로準備되는오늘에 背目的인 那的의突進의運動은 期할수업슴을是認할바이다 그러나昨年末에잇서 全南阿聯邦의「트란스발」「요하네스부륵」「나달」「오렌지」等各地에서의 百萬의黑人이 決死的인 斷乎한反抗運動에나온것은 그들의勢力이 아즉決定的인威力으로되기어려움을 생각할지라도 오히려叛逆過程에잇는 弱小民族을爲하야 千丈의氣焰을吐하여준것을알것이다 여기에잇서 彈壓者의편으로는 例에依한『赤化』或은『背後의勢力의使嗾』等의口實로써 列强資本主義的勢力의압힘 그欺瞞的인政策을發揮하엿섯다 그의後報는 杳然하야그眞相을 어더들을길업거니와 阿洲의形勢이러한때에잇서 三億二千萬人을包擁한印度人의

排英運動

은 一九二九年末日로써 그의施政期라는不得已한過渡가 終了된後 畢竟은巨大한反抗의 횃불을 잡히게된것이다 君이여 記憶하는가?『케입타운』으로『카이로』로! 그리고『캘커타』에外지의悠悠一萬五千哩에뻐치는三C鐵道의實現과함께 어데까지든지鞏固히하려는『앙글로삭손』氏의大英帝國主義政策의最後的인大猛心을?

朝鮮問題爲始 拓省重要案

近近各地長官召集코 具體的으로協議할터

(東京電) 松田拓相은殖民地統治에關한劃時期的新政策을遂行코저種種新計劃을促進中인바이미具體化되어今春外지넘어오게된重要案件은

一、朝鮮自治權擴張案

二、在滿朝鮮人保護에關한徹底的方策의確立

三、滿鐵附屬地行政權의關東廳移管問題

等案件으로모다 오래동안의懸案일뿐만아니라 그中어느한가지를實行하드래도殖民地統治及對滿政策上에新紀元을劃할만한重要案件인바此等重要案件은모다一月十日지나서齋藤朝鮮總督、仙石滿鐵總裁、東田關東長官等의入京을기다리어拓務省에關係된殖民地長官會議를開하고一齊히具體的協議를進行하기로、右以外本年度拓務省關係의重要案件中에는滿鐵昭和製鋼所問題、朝鮮米의輸入統制問題、臺灣新竹及嘉義에市制를發布하는問題等이잇슴으로그將來는注目될것이리라더라

人事消息

▲田澤淳氏 米國에留學次로七日朝에出發

八面鋒

『나는閻錫山에게잡힌목숨이나다름업다.』 그러나내安危는생각말고全體의生死를講究하라고한것은、趙安村에들어안저잇는馮玉祥이、吏部務에게한말

○

그런데一方蔣介石은、閻錫山의氣勢가날로盛旺하야감을보고、슬그머니馮玉祥에게秋波、

○

昔日의馮玉祥이、오늘의蔣閻의노름거리될줄이야뉘알엇스리

○

中國은今年內에各國에對하야駐屯軍隊의撤退를要求하리라고

○

외쪽몸만달어야단울치는데、뒤틀어진列國의심보、그남아잘들어줄는지!

金解禁當日을

生活權擁護「데이」로 ◇大衆黨委員會決定

(東京電) 日本大衆黨에서는六日常任執行委員會를開하고左와如히決定한바잇섯더라

一、一月十一日金解禁當日을生活權擁護「데이」로하야生活權自己防衛에關한細目을東京大阪等全國各地에撒布할것

二、一月二十日議會休會끗나기前에議會解散要求及濱口內閣不信任의民衆大會를擧行하야翌二十一日決議文을議會에서濱口首相에게交付할것

腹痛과下痢症에
糖衣아도-스錠
ADOS
痢疾 赤痢 疫痢 虎列剌 腸加答兒 腸窒扶斯 吐瀉症 胃酸過多症 結核性下痢 急慢性下痢等
安全·奏効如神 各地有名藥店販賣
本舖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藤澤友吉商店 支店 東京·京城

今般本院을大擴張하는同時에特別히漢藥調劑部를設置하옵고蔘茸唐草材를原産地로直輸入하와左記와如히廉價로酬應하오니材料精選과調劑에精密을一次試用하시압소서
六味湯 一劑上特 二圓五十錢
八味湯 同 二圓八十錢
十全大補湯 同 三圓三十錢
大補湯 同 十圓
八珍湯 同 三圓三十錢
四六湯 同 三圓
水士湯 同 三圓
肥兒湯 同 一圓五十錢
附子理中湯 同 三圓
補中益氣湯 同 三圓
調經種子 種玉湯 同 三圓八十錢
倍四物湯 同 一圓十錢
雙和湯 同 一圓十錢
固眞飮子 同 三圓三十錢
歸脾湯 同 三圓三十錢
六味丸 同 三圓五十錢
八味丸 同 四圓
大補丸 同 十二圓
十全大補丸 同 四圓五十錢
四六丸 同 四圓
肥兒丸 同 二圓五十錢
水士丸 同 四圓
七製香附丸 同 三圓
別告 服藥家에如何한處方이든지付送하면廉價調劑함 但十圓以上注文則送料本院自擔
京城府鍾路五丁目三 內外科及花柳病科專門
百中院漢藥部
振替京城八七七四番

有利仕事
收入確實照會二錢要實物見本添 特約代理店募集
大阪市港區石田町停留前 錦工堂本店

男女防ゴム サック
本邦唯一精良品
丁子堂

新大學生活 全九卷
可憐코린무어孃主演
大預告
優美館 電話光三五九番

朝鮮劇場 電話光一二八一
下水道 全八卷
脚光의影 全八卷
젊은이의노래 全十卷
夢想의길 全七卷
戀愛는異常하다

一大示威를計劃한 十一人事件의五氏出監
六人은制令違反으로豫審에廻付
法令適用에苦心하는當局

민중여론을환긔하려는 모종의대계획을하다가 삼십이허헌(許憲)등 열한사람은 작일 오후에제령위반으로 허헌등여섯사람은 긔소되고권동진씨등다섯사람은 긔소유예로 석방되엇다 작보한바와 가티전라남도 광주학생충돌(光州學生衝突)사건을도화선으로 하야지난십이월초순경을전후로 조선각지에서 맹렬한학생시위(學生示威)사건이폭발되자경찰은뻐쫄노치지안코사건관계자들을검거하는등 긔미운동(己未運動)발생후십년이래초유의대사건으로전개(展開)된중에 신간회본부(新幹會本部)에서는동회중요간부를 중심으로하야모종계획의민중대회(民衆大會)를 열고 결의문(決議文)을 발표하고 긴민족적여론(民族的輿論)을환긔하고시위행렬(示威行列)과가두연설(街頭演說)을 가지려는등중대계획을진행하든중미연에발각되어경찰의취조를마치고시내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구치감에수용되엇든허헌(許憲)권동진(權東鎭)씨등열한사람은그동안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서고등법원이등(伊藤)검사의취조를받든중지난륙일오후네시에제령위반(制令違反)이라는 특수범으로적용하야허헌(許憲) 등 여섯사람은 예심에 회부되고 권동진(權東鎭)씨등다섯사람은 당일(륙일)밤여덟시반에석방(釋放)되엇스나이번사건이긔소(起訴)되기까지의경로는과연어떠한것인가?

示威運動과 民衆大會開催
保安法未遂로 制令違反適用
조선인에게알리려든일

그리하야 경찰부에서 부친보안법 위반하게된것이라더라

학생시위 사건이경향각지에 심각화(深刻化)하게진전되자 신간회본부(新幹會本部) 중요간부등은 이 광주사건(光州事件)으로하야 조선사람에게 어떠한관계가 잇는것을 여실히설명하고 과거조선총독정치를 다시 조선민족의 여론에 호소하자는의미에서모종의를하야 그로써 민중을각성케하고 긴긔한바와가티 시위행렬(示威行列) 민중대회(民衆大會)개최등실로 조선긔미운동이후처음보는 국내사건을 계획하든것이다

十二月五日 第一回發起會
그후루루히모히어서 同十日에重大한決議

그리하야학생만세(學生萬歲)사건이 지난십이월사일부터 순차(順次)로 시내각학교에 파급되고경찰은실로평화한학원(學園)에들어와다수학생을검거하는등 공긔가날로험악하여지는데 신간회간부(新幹會幹部)는본부중앙집행위원장(中央執行委員長)허헌(許憲)의발의(發意)로이에 크게민중운동을 이르키자는결의에서 지난십이월오일오후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일백이십오번지 허헌의집에서 중요인물을모와 제일회발긔회(第一回發起會)를개최하고 그후계속하야 수차모히여서 회합하야 루루협의한결과 드되어동십일오후 시내모처에서전보한결의의공을발표하고 그로써 민중을각성케하고 긴긔한바와가티 시위행렬(示威行列) 민중대회(民衆大會)개최등실로 조선긔미운동이후처음보는 국내사건을 계획하든것이다

取締하러간警官이 槿友會員에게非行
◇요령녀자의손목을잡고실례

적은일부터가 事件의核心
出監한權東鎭氏談

취조하든이등(伊藤)검사의구속(拘束)할 필요가업다는 리유로 륙일오후여덜시서대문형무소구치감에서석방된권동진(權東鎭)씨는 ...

鍾路署員의失態

작년십이월 삼십일일 오후에시내종로서고등계원한명이 공평동근우회관(公平洞槿友會館)에 이르러 마츰집을지키고 잇든근우회원인 한사람의 묘령녀자에게향하야 무례한 행동을 하다가 본인의 완강한 반항으로 드디어 뜻을이루지못하고 도라간사실이 잇다하야 근우회에서는 사건을중대시하고 그동안여러가지로 그대책을 강구한결과 칠일오전 열한시경에 림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선경찰당국에 엄중항의할것을 결의한후 경에 ▲中央檢查委員長 金繡準▲同委員 金相□ 외량씨가 종로서로 삼서장(森署長)을방문하고 두문항의 항의를 과 삼서장도그사실을 시인하고 책임경관의 엄중처벌을 언명하기까지에 이르럿다는데 이제그 사건의 상세한내용을 듯건대 작년십이월 삼십일일 오후한시 삼십분경에 종로서고등계 외근계(鐘路署高等係外勤係)고군 경부보(古郡警部補)가 공평동 근우회관을 차저와서 마츰 외로히 방안에서 회관을지키고 잇든 근우회상무집행위원 박영경(朴英瓊)(假名)(二五)양에게 향하야 방안에드러가도 조흐냐고 무른후그가 항상드나드는 경관임으로 박양이 드러와도 조타는뜻을 대답하자 곳방안으로 드러가서 닷자곳자로 그녀자의 손목을 부잡고 무례한 행동을하려다가 필경목적을 달하지못하고 도라간것이라더라

責任警官의 處分을要求햇다
운동선의수치를씻고자한다
◇中央委員長 金繡準氏談

종로서로삼서장(森署長)을방문하고 도라온근우회 중앙검사위원장(槿友會中央檢查委員長) 김수준(金繡準)씨는 금번사건에 대하야 다음과 가티말하더라 「말슴하기도 참창피합니다 지난이일에야 그사실을듯고 우리는여러가지로 그대책을 강구한결과 우선책임경찰서에가서 엄중항의키를 결정하고 지금갓다오는길입니다마는 삼서장(森署長)이나 길야고등계주임(吉野高等係主任)이나 다가티사실을시인합니다」

十二月廿三日送局 法文適用에苦心
검사국에보낼때엔보안법위반

그러나사건은 미연에 발각되고 그중김무삼(金武森)은 시내인사동(仁寺洞)조선극장에서 그결의문을 발표하고 연설을 하엿섯다 그리하야경찰당국은 주요인물을 검거하고 모래동안취조를진행하다가 지난십이월이십삼일 보안법(保安法)위반으로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넘기어 고등법원이등(伊藤)검사의손에서 원안(原案)을 식히며 신중한 태도로취조를진행한중법문적용(法文適用)에 고심(苦心)을하든것도 사실이다

법은그미수(未遂)임으로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는이상 긔소(起訴)는 할수업는바 사법성(司法省)에서그 최후의 태도를 결정하기에연구를거듭하다가 드되어 제령위반(制令違反)의원용(引用)으로다 허헌등여섯사람은예심(豫審)을청구하고 그나머지는 검사손에서 그대로 석방하는중이라한다

◇豫審에廻付된六人 ◇許憲 ◇洪命憙 ◇李灌鎔 ◇李源赫 ◇趙炳玉 ◇金武森

◇釋放된五人 ▲權東鎭 ▲孫在基 ▲朱耀翰 ▲金恒圭 ▲韓龍雲 外不拘束一人

잇는원긔상엇한어조로다음과가티말하더라 그간우중의 검상은 ... 우선상례로 미두고자하는 나다 우리는 처음부터 할작 논것이 이번사건의 해결 ... 心)이어습니다 가티나오지못한것은 참으로 검섭합니다

休校中의三校 無事開校
출석자성적 평소와일반

종로서관내에 잇는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普) 휘성실업(徽成實業) 청년회학관(靑年會學館) 세학교는 칠일부터 일제히 개교되엇는데 이날의출석자의성적은 평소와 별다름이 업섯스나 경찰당국에서는 만일을 념려하야 경계를하엿다는바 휴교되엇든 각학교는 팔일아츰부터 구일까지 전부개교될예정이라더라

制令第七號
第一條‖政治의變革을目的하고多數共同하야安寧秩序를妨害하거나妨害하려는者는十年以下懲役이나禁錮에處함但刑法第二編第二章의規定에該當한時는本令을適用치아니함 前項의行爲를하랴는目的으로써煽動한者의罰도또한前項과가틈
第二條‖前條의罪를犯한者가發覺前自首한時는그刑을輕減하거나免除함
第三條‖本令은帝國外에서第一條의罪를犯한帝國臣民에게도또한此를適用함

◇寫眞은‖(向하야上右로부터)豫審에廻付된許憲、洪命憙、李灌鎔(以上上列)李源赫、趙炳玉、金武森(以上下列)下는釋放된五氏(向하야右로부터)金恒圭、韓龍雲、孫在基、權東鎭、朱耀翰諸氏

酒類密造뒤지엇다고 專賣局吏二名打殺
◇네명중에서두명은간신히도망
唐津郡慘事詳報

전주전매지국(全州專賣支局)례산출장소(禮山出張所)고원 ... 등 네명은 ... 충남당진군(忠南唐津郡) ... 밀조주를 취체하기 위하야 ... 부락민에게 ... 목숨만 사라난일이 잇다 ... 두어집에서 ... 부락민은 이에분개하야 여명이모히어리원네명이도라가 논길에매복하여잇다가습격하야 ... 이십칠일오후한시삼십분경에 ... 조두원 ... 외의 자십칠명을 검거하야 목하엄중취조중인데 이번사건은 권매제도를 실시한이래처음 잇는일로 전매국에서는사태를비상히중대시한다더라

인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할것 ... 주장하엿습니다 ... 금후의우리운동에 오점(汚點)이 되게하기위하야 어디까지 책임의소재를 엄중히 명백하게하려 합니다」

墓地에버린嬰兒屍 十五個가白骨化
◇큰도시에숨은죄악!◇
東洋怪都市上海에서

중국 상해(上海)이라하면 세계각국의 모든잡난사람과 모든악한사람이 모히어사는곳이라 세계의혁명청년도 만히모히어살고또한살인강도등 궁흉악한사건이 만히생기는 도시이다 상해는선악의두방면으로 팽창한도시이다 이번에 상해에서와 한편에추악한 ... 륙혈포강도 ... 매일생기는바 이번 도시에도 새해가차저오고 새봄이 차저왓스나 근일에 흉악한 사건이 ... 운갓난아희의 지옥을공동묘지 공부국(工部局)경찰서(警察署)의손으로 발각하엿다 그것이허구만흔곳에림시법원(臨時法院)바로압헤잇는부망산에열다섯개의갓난아희시체를 내버린것이발견되엇다 그것은사람이별로단니지아니하는적적한 곳이라 작년섯달부터수주일(數週日)동안밤마다가만한사람과 ... 올시못하게 나흔어린아희의 처치에곤난하야 내어버린 것인듯한데개는 막ㅡ나자마자 잡거적이나 걸레에싸서 갓다 내어버린것으로 너무도잔혹한 사건이라고큰소문거리가된다더라 (상해)

太平通殊常漢 잡고보니窃盜
려관에서

칠일새벽 새로한시오십분경에 ... 려관에서 ... 그자는 ... 충남논산 ... 중인데 ... 여죄를 자백하엿스나여죄도만흘모양이라더라

自働車가電車와衝突
승강대가부러저 쌍방이모다손해

칠일아츰여섯시십분 시내화원정(花園町)일백칠번지압헤서 운전수 한기세(韓基世)(二二)가운전하는 자동차가 황금정(黃金町)사정목으로 본정(本町)사정목으로 횡단하려는 전차와 정면으로충돌하야 전차와 자동차는 승강대가부서저 쌍방이 수십원의손해를 입엇스나 다행히부상당한사람은 업섯다더라

放銃射人한巡查와 無責任한廣州署
범행한순사는무명도안오고 사람을너허和解만要請

경긔도광주군대왕면 ... 에서 ... 광주경찰서순사고(高) ... 가 ... 사람을 쏘아 ... 중상을 당하엿는데 ... 그후 순사는 한번의 방문도업고 조선인순사가 날마다드러와서 고소를 말고화해를 하여달라하며 그동리에사는 ... 등을 잡봉 ...

써쓰에치여 兩人重傷
륙일오후에 종로삼정목에서

륙일오후 세시경에 고상권(高尙權)이 운전하는 부영써쓰가 종로삼정목구번지(鍾路三丁目)압 부근을지날즈음에황해도연백군연안면 연성리김덕홍(黃海道延白郡延安面延城里金德弘)(二五)과 인의동륙십사번지 리성천(仁義洞李聖天)(三〇)의두명과 정면충돌이 되어 김덕홍은치료이주일을요할 부상을당하고 리성천은 ... 즉시의전병원(醫專病院)에수용하야 응급수당을 베픈결과 생명은구조되엇스나매우중태이라는바 운전수 최대룡(運轉手崔大龍)(二四)은 방금종로서에서엄중취조중이라더라

陵參奉에게問責 調査員派遣
新幹廣州支會

이전번 ... 리환문(李換文)씨를 ... 광주지회 ... 조사원을 파견하야 ... 능참봉 리환문(陵參奉李換文)에게 ... 문책하기로하엿다더라

一見에百萬長者 其實은金屬窃盜
기생집으로놀러단니면서【數百圓어치훔치고發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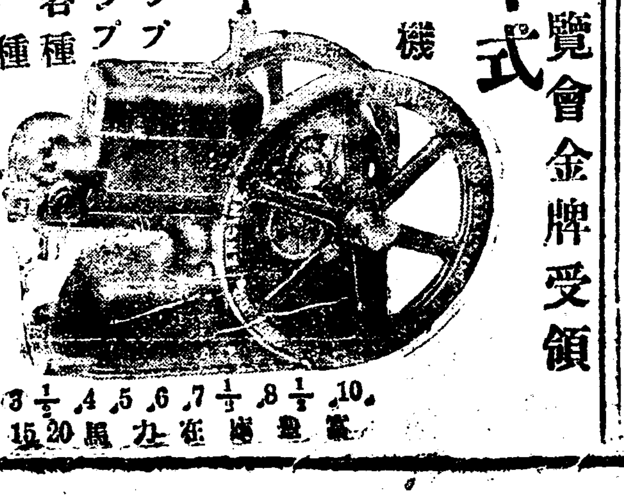
경남창녕군창락면외부리삼백구십번지(慶南昌寧郡昌樂面外釜里) ... (二四)이는 본적지에서 큰부호이엇스나 주색(酒色)에 가산전부를 탕진하고사기죄(詐欺罪)로전후세차레나 전과(前科)를 거지든자로 최근에는 시내각권번기생 ... 니며마치백만장자(百萬長者)와 가티 거짓꾸민후 시내봉익동한남권번기생전채봉(鳳翼洞漢南券番全彩鳳)외 수명의 기생집에서수백원어치의 귀금속(貴金屬)을 절취소비한사실이 발각되어방금 종로서사법계에서 엄중한취조를받는중 이라더라

參茸唐草乾材都 散藥貼藥專門 朝鮮商會 肝病舊風 영약 腫仙膏 百種根治

團成社 (電話光九九五)
一月五日晝間부터 新春勞頭第二週의 三大名篇特別封切
◆獨逸우파超特作文藝映畫 鬼才두도위피엘갤氏監督 왈스의꿈 十卷
樂聖오스카수트라우스氏의 라及한스뮬레氏原作에서映畫化한絕對優秀한珠玉篇! 滿都人士여!綺麗與邪한왈스의메로듸에서흘너나오는아름다운靑春의歡喜에마음껏醉하라
◆FBO超特作品 또지、B、사이츠氏監督 決死的大活劇 掠奪軍 七卷 아보지안으시렵니가?
◆FBO傑作名篇 케스타콩크린氏主演 택시十三號 七卷 言語超絶凄絶한大活劇 케스타콩크린氏畢生의代表的傑作喜劇이라고斯界의定評이잇게된特作品
特別豫告次週는 콩이드스피데이 어머니封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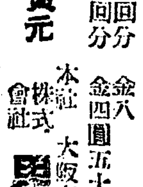
儒會褒彰社
開城郡靑郊面廣川里李在茂孝行其孫桓俊爲其祖褒彰事

於朝鮮博覽會金牌受領
ニノミヤ式
石油發動機
ニノミヤ式製粉精米用機 兼用機
同セントリーヒューガルポンプ
同バーチカルポンプ
精米麥粟機各種
籾摺機各種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京城府西界洞二二 京城鐵工所 電話龍山二二三番
京城驛前 京城鐵工所營業部 電話本局九四一番



總督認可 京城第一自働車學校
生徒募集入學隨意。學費低廉。前京城自動車講習所創立十週年貢獻에依하야昇格記念
校入オンドル其他自動車數大臺實習場에서敎授함을보라 學則送呈(二錢切手封入)(京城黃金町六丁目)赤十字病院前

모루히네(阿片類 해로인) 解毒藥의 世界的發見
名藥 アンチモヒン (안치모힌)



阿片모루히네의慢性中毒에對하야、如何한重症이라도廿回乃至四十回의靜脈注射로的確히全治되는空前無比의新劑입니다 應者諸君은速히醫家에게本劑의注射를依賴하십시요 (說明書進呈)
●本劑는發賣以來이미參個年을經한바益益그需用이增加합니다 이것은本劑의眞價를表現하는것으로近年本劑와類似한種種의藥劑가發賣되나하나도永續하는것이업섯습니다 信賴하시고 本品을愛用하시기를바랍니다

價格 拾回分 金八圓 五回分 金四圓五十錢 送料五拾錢
發賣元 本社 大阪市東區今橋二丁目(振替大阪) 株式會社 黑田藥品商會 本店 東京市麻布區(振替東京)

聲明書

敬啓者 客年十二月廿九日附發行內外各新聞號外에 發表된山梨疑獄事件中에生이贈賄買官하엿다는記事가揭載되온바此는實로全然無根이라驚愕不禁하오며 勿論不遠間同事件의豫審이終結되고公判에廻附될때에는事實의眞僞는天下에明知될것이오나生으로서는目下에잇서오히려昌披莫甚하와爲先新聞紙上으로左와如히聲明하오니親知諸賢께서는깁히諒解하시기를바라나이다 이러한虛無孟浪한世評을밧는것도또한生이平素에不謹慎한所致인가생각하오매實로悚懼不勝이오나親知諸賢께서는압흐로더욱만흔敎導와鞭撻을주심을伏望하나이다

記

一、生은贈賄買官한事實이絕無함
各新聞에中樞院參議를金萬圓으로運動하다가起訴되엿다하엿사오나生은이러한事實로起訴된 勿論取調를밧은일도絕無함

二、生은本是官界에適材가아님을自知할뿐아니라그뜻도또한업습으로過去는勿論未來에도官界에投身할欲望이업습을 이機會에聲言하나이다

昭和五年一月五日
黃海道安岳郡邑內 金鴻亮 白

宣川排水工賃問題로 勞者와雇主間談判
신문긔자와공직자도참석 歸結은十日로延期

선천 배수구배수 공사장부□자 수간(水間)의 하청부업자 하진이가 로동자의임금을 무리하게 도지불하지 안흠으로 일대문제 가되어 잇슴은 동자 보도한바어니와이문제에 대하야 지난삼일 선천면당국에서는 안동현에 잇는수간의지조(水間組之助)에게 직원을출장식혀 수간을다시불려다가 지난오일오전 십일시에 일반로동자와 각신문긔자와 공직자 이상인합하야 약오십여명의 사람이선천면 회의실에모혀서선천 수간을 불러다 노모회의를개최한후 선천번장 김학규(金鶴奎)씨로부터 배수 공사에 대하야 하등의부정사실이 업다는개요(槪要)와 이번 로동자임금문제에 대하야 처음으로부터 지금까지 청심청의를가지고 노력한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야일반에게 철저히 소개하야면당국에대한 의혹을 풀게한후로동자대표와 공직자들이 수간에게대하야 어쨋하야 당연히지불할로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아니하느냐 부정함이잇다든지 아닌이잇다든지하는 오직그대의 부하인하진의 책임이요 우리로동자에게 모든책임을 돌리어가며 부일만치 다부런임금을 불편한바드대는 그런부런연 행동이어대잇느냐하는 화두(話頭)로 비롯하야 종일토론하다가 오후륙시경에이르러 수간으로부터 금번이문제로말하면 처음부터 평양잇는 송본조(松本組)의삼호(三好)와 나의하청부업자하진과새 사이에 관계되엇든 사실이니이제다시 세사람이 모혀서 의론하면 금번이 문제를원만히해결할가능성이 잇다고 생각한다 이제로부터 이달십일까지만 연긔하야달라고간절함으로 로동자대표 김일준(金一俊)씨로 부터 그대의 사정이 그러타하면공식으로는 그요구를 인정할수 업스나비공식으로만인정한노라 하고 승락하야 문제는연긔되고 여섯시반에헤어젓다 더라

晉電減燈과減燭의 實行方法決議
회사의수입을반감할한도로 電料引下期成役員會가

진주전긔로인하야긔성동맹에서는 지난삼일밤에 동회 계산회대회를 개최하고 부분소등(部分消燈)을 단행하기로 결의하얏다는것은이미본보에 보도 하얏거니와 이에그실행방법을 토의 하기위하야 지난오일밤 아홉시부터시내동본원사(東本願寺)에서동회역원회가 개최되어 진시내를륙구(六區)로 난우고 역원을각구에 배치하야 감등과멸도(光度)를 축소토록할것이며 호별(戶別)방문하되금월십일이내로진주전긔주식회사의 전수입을 반감케하는 한도로 하리라하며 경비문제에관하야는 역원과 거타일반동맹원의 희사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되어 동역원회 석상에서사십여원을 추렴하고 동십일시경에폐회하얏다더라(진주)

農民本位로 消費組合創立
安州大尼面에

남로과멸문방하여서는우리농민의 경제를조금이라도 구원하야 가라면 농촌소비조합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지난섯달 삼십일 오후두시에 안주군대니면 룡봉리봉명리(安州郡大尼面龍奉里鳳鳴里)의농민들은 대명학교안에서 니산소비조합(尼山消費組合)창립총회를열고 림시의장박리태(朴利泰)씨사회하에회의를원만히 진행하엿는데 토의사항은왼쪽에와갓다 더라

◇綱領
一、우리는農民大衆의經濟的團結을鞏固히하함
二、우리는自主的訓練을圖함
三、우리는途業의大衆化를期함

◇議案
一、出資金에關한件(一人一口主義)
二、規約通過에關한件
三、組合員募集에關한件
四、組合位置에關한件
五、物品購入方法에關한件
六、開業에關한件(保留)
七、出資金徵收에關한件

◇任員
組合長康秉禮 專務朴利泰 白大訓 中基實 監査金粱奎 李東茱 羅一夫 理事安大植 李東詰 金光明 黃憲龍 朴與吉 朴龍吉 朴贊吉 安鳳鎬 金日穆

東海岸目島에서 魴魚漁獲盛況
하로잡은것이일만팔천마리 總價格十五萬圓

경남울산군 온산면목도(慶南蔚山郡溫山面目島)에서 재년시설(施設)하야오든 수곡대부(守谷大敷)에서는 지난 삼십일오후 두시경에오십여명의선원(船員)을인솔하고 만경창파에 큰배(鰤)하야돈천여장(千餘丈)되는 위망(圍網)을 인치한결과 삼척(三尺)이상되는 방어(魴魚)가 만적(滿積)되어 산을 일우엇다는데 범선(帆船)두척은 운반(運搬)발동선(發動船)삼십삼척과 발에분양하고 일반관중(觀衆)은 립추(立錐)의여지가업서장(市)을일우며 고기수량(數量)은 일만팔천미(一萬八千尾)가정하고 총가액은 십오만원(十五萬圓)에달하엿다더라(목포)

新興農組委員會

함남 신흥군(新興郡)에서무소를둔신흥농민조합(新興農民組合)에서는 지난 이십팔일오후한시부터 커[illegible] 오회집행위원회를 본보 신흥지국내(本報新興支局)에서 위원장박준(朴畯)씨의 사회로 개최하엿다더라(신흥)

◇部署 ▲委員長朴畯 ▲庶務部長宋

大同郡林原面에 消費組合組織
농촌생활의필수품을매매하고 리익으로는공공사업에쓰기로 六十餘人士가贊同

대동군림원면상오리(大同郡林原面上五里)에서는리래흥(李泰興)씨발긔로 소비조합(消費組合)을조직하게되엇다는데 그목적은 생활상의 필수품(必需品)등을 관매하야 그생기는 리익으로는 공공사업에 충용(充用)하기로 함이라는바 림회금은 일인에일원식이며 현재찬성자가 륙십여명이라더라(평양)

義州靑盟委員會

의주청년동맹 의주면지부에서는 지난사일오후 칠시부터 동회관에서집행위원장 류종원(柳宗元)씨의 사회로 정긔집행위원회를 개회하고좌긔사항을토의한후동삼십분경에폐회하얏다더라(의주)

◇議案
一、組合費收納의件 一、事務所設置의件 一、讀書班設置의件 一、□□의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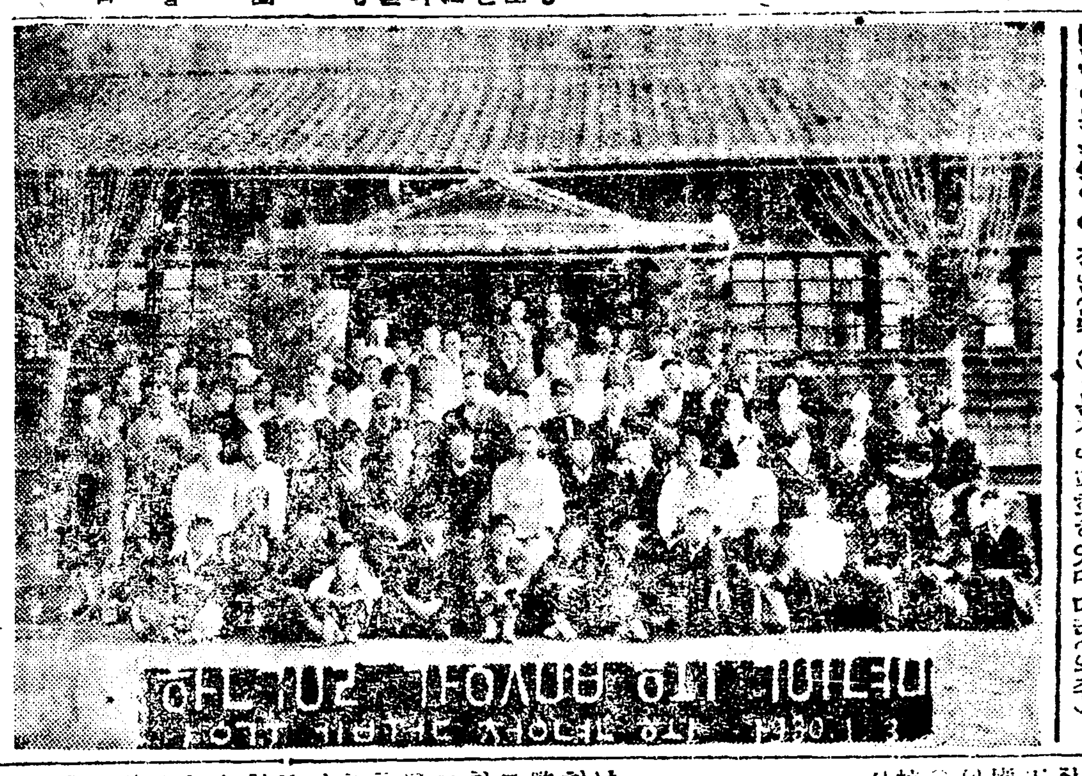
▲執行委員長 李炳疇 ▲書記長 [illegible] ▲組織宣傳部長 李邦瑞 部員 李果珍 朴長學 韓相俊 柳泰完 ▲調査研究部長 李鼎柱 部員 韓炳述 韓德鉉 金永奎 ▲敎養部長 朴長英 李金生 李秀浩 朱用寅 韓基函 ▲監察部長 [illegible] 容獻 韓昌勳 李學源 李炳禹

◇演士
東上面 林忠錫 韓澤奎 永古面 李達福 柳泰完 西古川面 李邦瑞 李勳基 東古川面 白仁德 朴長英 元平面 宋錫凰 李甲祚 加平面 朴畯 李鼎柱

一、支部設置의件 一、市升斗量統正의件 一、共同販賣及購買機關設置의件 一、其他

寧邊一帶에 所謂南鮮敎盛行
일반농민을꾀어서미혹케하여 가산을탕진한자도다수

요사이녕변지방(寧邊地方)에는 소위남선교(南鮮敎)라는것이 농촌벽한곳으로 차차 단이면서 어리석은 농민(農民)과완고(頑固)한이들을꾀이어 진인(眞人)이어대해도중(海島中)에서정도령(鄭道令)을모시고잇스니 남선교만미드면 어느때에든지한번 세상에나오기만하면 축천측지를 하고풍운조화를 임의로직우하야 우리민족(民族)을 잘살게 한다는등또는 도통(道通)를하려면 수천원가지고 해도중을 차자 가면고관대작(高官大爵)의 자리를준다는등 별별괴상망측한 미신(迷信)을 늘어다부치여입도금(入道金)일원과 려비(旅費)매월이십전 여상식을바다먹고잇고 입교(入敎)시킨다는바주모자로 룡추동(龍湫洞)에 사는장모(張某)란자가 활동하야 여러사람이 생업을 등에 근일에이르러는 수인이 가산을 탕진하여가지고 도통(道通)하려고 해도중을차자 갓다는데 일반은 유혹밧지안토록주의할필요가잇다 더라(녕변)



〈楊口한글講習會〉

老壯士가 大虎를捕獲
지나삼일에

인천(仁川) 외리(外里) 김윤복(金允福)씨는 당년륙순 로인으로 본래 호유투사(好勇鬪士)의 긔풍이잇스며 장하야 금일산파 호로는붕을떠더 산양하기를조하하든바 작년십이월 이십삼일에당지를 떠나왕래도 남천(南川)부근으로산양을갓다가 지난 삼일에 그곳험악한 산중에서 대호(大虎)를발견하고 용감하게도 총을노아 결국잡앗다는데 그호랑이의길이는 륙척이나 된다하며그외에 산도야지와 기타짐생도만히 잡아가지고 몰아왓다더라(이천)

新春講演會
오는이십일오후 義靑支部主催

의주청년동맹 의주면지부(義州面支部)에서는 오는이십일오후칠시부터 당지공회당에서 신춘강연회(新春講演會)를 개최하리라는바 모든 방금준비에분망중 이라는데연사는아즉 미정이라더라(의주)

◇英明同志會發起‖평북자성군장토면호하동(慈城郡長土面湖下洞)에서는김봉련김봉희(金鳳希) 량씨의노력으로독의상조(篤誼相助)와지식계발(智識啓發)로 영명모교(英明母校)발전을도모키위하야 영명동지회를발긔중이라더라(자성)

楊口에서 한글講習
大盛況을일위 본보지국후원

남감리교회춘천지방양구구역교회안에잇는 양구엡윗청년회(南監理敎會春川地方楊口區域엡윗靑年會)에서는 오래동안 침체중에잇섯든바 커번에구역장 이반구인이후로리승석(李聖錫) 목사가 신임되어 청년회의침체를유감으로 생각하고 열성으로 활동하야 부흥식한후에 새로이 진용을정리하고 첫사업으로 본보양구지국(本報楊口支局)후원하에 경성에잇는 리윤재(李允宰)씨를초빙하야 지난이십구일부터 양구공보교대강당(楊口公普校大講堂)에서 한글강습회를개최한바 양구에잇서서는 처음되는모임이니만치 청강생이 백여명에 달하는대성황을일우엇스며 매일오후네시로부터 세시까지와 오후닐곱시부터 아홉시까지의매일네시간동안을한글의연구로소수업하엿스며 시간의여유를 리용하야 연극재한중인 렴석정(廉錫鼎)군의 음악이잇섯으며 청강생으로하야금 취미진진한 가운데 지난삼일 오후아홉시에 한글강습은 무사종료하고 강사리윤재씨의감상담과강습생중으로감상담이잇섯스며태빈케씨의 의미심장한 축사가잇서 화긔충만한가운데동십시경에무사폐회하엿다더라(양구)

貧困者에同情 두녀자의특지

함남단천군리중면두연리(端川郡利中面斗淵里)에사는전□□(全大□)는일년간에죽을짐을나하야노력하더니 불행이산도야지에게다에잇기고 최차네병과가리 진긔두연리에와서산에의지하야 조고마한 골목을지어 존홍도뜻처도안흔 그속에서 험한몸에 먹을것이 업서시각으로도죽기만 고대하고잇스나 이웃집사람들은 누구하나돌보지 않고 쌀한줌놓정이업든중 성진군학남면 룡대동(城津郡鶴南面龍垈洞)에잇는리춘실녀사(李春實女史)(三三)와김순희녀사(金順姬)(二三)두사람은 근우회성진지회원(槿友會城津支會員)으로지방에서 녀성운동에만흔노력을하든터로지난십일월중순에 권긔두연리를 지나서 배채를사려갓다가해가저무러서 배채는 사지못하고 집으로돌아오는길에 조고만한 집이잇슴으로사람이잇는가하고그두녀자가 그집에들어가보니 몃칠전부터 먹을것이 업서요 혜맘하기운이 업서고그내용을랍문하야 그들의 가엽슨정경을알고돌아와 그두녀자는 그곳근우회(槿友會)회원들과상의하고 헌신적으로 집집에돌아다니면서 좁쌀을 한되두되식 어더서 겨우서말을모앗스며 의복은 자기들의손으로지어가지고십오리나되는그곳으로 이져울에 치위들누릅쓰고 권긔전병대의 집까지소미서말과의복다섯벌을갓다가주엇다는데 이소문을들은 두연리사람들은그의특지를칭송한다더라(성진)

梁山靑盟委員會

량산청년동맹에서는 지난달 삼십일오후칠시에 제십회 위원회를개최하엿섯다더라(량산)

◇決議
一、委員長代理選擧의件
一、勞動夜學의件

本社大田支局 今年度事業計劃
신사업만네가지를발표

본보대전지국(本報大田支局)은 일반인사의 열렬한원조와 지도로업무가 날로번영함을따라 금년신사업으로 별항사대사업(四大事業)과계속사업을 힘러인바일반은 만흔성원이 잇거를바란다더라(대전)

◇新事業
一、支局建築(今年中)
一、大田紹介版(今年中)
一、講演會開催(隨時)
一、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四月中)

◇繼續事業
一、讀者慰安大會(隨時)
一、古蹟名勝地探勝隊組織(四月中)
一、市內見學團組織(五月中)
一、全大田少年野球大會(五月中)
一、全大田蹴球大會(七月中)
一、全朝鮮庭球大會(八月中)
一、南朝鮮蹴球大會(九月中)
一、大田市民陸上競技大會(十月中)

舊年末景品付大販賣

◇期間 舊十二月三日로二十九日까지
◇景品總額 四百圓 一等白米三石외一個
◇主催 天安邑內朝鮮商人二十三店聯合
◇後援 東亞、朝鮮兩支局

第二回 平北兒童 作品展覽會

出品期日 一月二十四日(음十二月二十五日)
開催期日 一月二十九日同三十日(三日間)(음十二月三十日-正月一日)
出品種目 圖畫、習字、手工、作文、童話、童謠、[illegible]
出品場所 定州郡伊彥面 沈香學院
開催 定州中□、五山□□、少□□支局
後援 [illegible]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總務兼記者 李甲善
朝鮮日報高興支局白

本支局記者安昌奉君은事情에依하야解任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朝鮮日報慈城支局白

本支局에서左記와如히電話를架設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電話二三〇番
朝鮮日報城津支局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順韻面駐在記者 金演壽
朝鮮日報通川支局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寫眞班 金日出
朝鮮日報昆陽支局白

本支局員韓麗述、禹鍾道兩君은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左와如히任命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시압
總務兼記者 姜大龍
朝鮮日報新泰仁支局白

謹賀新年

河東
河東 郡守 李韶榮
河東 郡農會
河東 面長 鄭燦鎬
河東邑內 南一物産株式會社
河東郡赤良面牛洞里 李源模
河東郡河東面邑內洞 李鋪衡
東□栗津 合田回漕店
光陽郡多鴨面 源生釀造場
河東邑內 河東酒類釀造場
河東郡北川面 北川酒釀造場
河東郡花開面三神山 桃園菴 朴觀音

004466

清州
京釜線芙江驛前 ⑦運送部 禹德三
燕岐東面公普校 職員一同
芙江驛前布木商 朴炳浩
清州郡芙蓉面事務所 職員一同
清州郡芙蓉面芙江里 面協議員 尹成吉
清州郡芙蓉面芙江里 有志 羅相圭
清州郡芙蓉面芙江里 方興喆
清州郡芙蓉面芙江里 酒類製造業 洪元杓
清州郡芙蓉面芙江里 林穗家
清州郡芙蓉面芙江里 米穀商 洪順鎰
清州郡芙蓉面芙江里 朴昌圭
清州郡芙蓉面芙江里 韓基鎬
清州郡芙蓉面芙江里 朴士俊
清州郡芙蓉面芙江里 共信洋服店 朴晉彥
清州郡芙蓉面芙江里 理髮業 林五龍
清州郡芙蓉面黔湖里 朴學均
清州郡芙蓉面黔湖里 朴洙春
清州郡芙蓉面蘆湖里 白榛基
燕岐郡東面事務所 面協議員 吳鼎均
燕岐郡東面葛山里 面長 裵道煥
清州郡芙蓉面芙江里 金鳳俊
清州郡芙蓉面芙江里 無名氏
清州郡南二面杏山里 吏□ 徐□綠

价川
价川郡朝陽面 醫生 崔駿升
价川郡朝陽面新立里 實業家 李連熙
中南三新里 釀酒會社 主 白庚珍
价川郡朝陽面鳳鳴里 金仁德
价川郡朝陽面鳳鳴里 洪龍淵
价川郡朝陽面鳳鳴里 有志 金炳載
价川郡价川面新松里 有志 李道熙
价川郡价川面新松里 有志 李錫熙
价川郡价川面新松里 有志 李曰熙
价川無盡合公立普通學校 評議員 李寅瑜
价川郡中南面三新里 醫生 金益明
价川郡中南 警察官駐在所一同
价川朝陽面鳳鳴里 有志 李致鳳
价川郡中南面長 崔昇均

善山
善山郡龜尾面事務所 職員一同
善山郡高牙面 文星洞 金家鎬

光州
光州湖南銀行 支配人 金信錫
湖南線松汀里驛前 碩濟醫院 院長醫學博士 金碩鉉 電話五番
光州湖南銀行 調査課長代理 庶務課長代理 鄭瑚謨
光州湖南銀行 支配人代理 李秉欽
光州湖南銀行 支配人代理 沈鎭燮
光州錦町 錦南旅館
湖南線松汀里 洪祥珍
光州郡河西面 金學中

鎭海
湖南線松汀里 川商店主 朴浩喆
湖南線松汀里 崔英漢精米所
湖南線松汀里驛前 雙華成鑄造所
湖南線松汀里 京城寫眞館 主 朴泰均
鎭海軍港慶和洞五條通 洋靴改良靴運動靴 都散賣及修繕付屬 慶昌洋靴店 主 李鳳九
鎭海軍港鎭島町八番地 鎭海自動車組合 營業所 電話一〇三番
昌原郡東面 面長 金振河
昌原郡東面花陽里 金柄執
昌原郡東面花陽里 朝鮮酒釀造元 金宰河

平原
平原郡永柔邑 華山醫院
平原郡永柔邑 天主堂
平原郡永柔邑 十日會
陽德郡文明里 拓新醫員 韋基喆
靑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龍湖面事務所 職員一同
龍湖駐在所 職員一同
海蘇駐在所 職員一同
海蘇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龍仁
朝鮮酒類釀造元 於朝鮮博覽會銀牌受領 於全鮮酒類品評會優等賞受賞 海東釀酒組合 組合長 [illegible] 理事 [illegible]
龍仁郡水餘面金良場里 金壽童
龍仁郡外四面白岩市 雜貨商 李海昌
龍仁郡外四面白岩市 雜貨商 李壽德
龍仁郡水餘面金良場里 綢緞布木和洋雜貨紙物石油文房具類 東亞商店 主 彬文灝
龍仁郡白岩市 雜貨商 金春政
龍仁郡白岩里 永信釀酒場 主 李東卿
龍仁郡外四面白岩里 指定旅館 金麟濟
龍仁郡金良場里 製麵業 吳貞根

槐山
槐山郡道安面石谷里 面協議員 李起淳
槐山郡道安面光德里 面協議員 金義經
槐山郡道安面老岩里 面協議員 盧永根
槐山郡道安面長 延秉基

江陵
江原道江陵郡江陵面旭町 各種家具 土木建築 其他請負 江元木工組合
江原道江陵郡連谷面栩等里 東洋貯蓄組合理事 全在默
江陵郡丁洞面亭洞里四〇〇 全永昌

城津
城津旭町 漁業組合
城津郡旭町 朝鮮釜雲丹瓶詰及海産物貿易製造卸賣 電話六番 梁京準
城津旭町 內山龜吉
城津日新驛前 川南罐詰所
城津日新町 [illegible] 得和

藝術의大衆化에對하야 이問題의解決을要求 (五)

金八峯

大衆 詩歌에잇서서 完全히한개의意識 한개의××的精神을가득히담는다는것은 困難한일이다 웨그러냐하면 한개의觀念을抽象的으로說明하고 或은政治的意味의標語를羅列함으로써 詩歌의效果를가저오는것이아니라 具體的生活과그生活內容에서생기는 感情그몰건을眞히感動的으로描寫함으로써만詩歌의效果는어들수잇는것임으로 恒常詩歌그몰건의效果는 感情의傳達과煽動의任務를마틀수잇는몰건이오 政治的意見의展開의任務를마틀수잇는몰건이아닌까닭이다

△ ▽

不平不滿의感情 鬱憤한感情 闘志에燃燒되는感情을傳達하고煽動하야서 實地로勞働 小作爭議나或은一般的大衆的투쟁이展開될境遇에 有用하게되면 大衆化의目的은到達하얏다할것이다 그리고내見解에限하야서는前記『아리랑』一節은 不足하나마 이러한效果를가저올수잇겟다

△ ▽

그럼으로 우리의詩歌의大衆化의方法으로 取할길은 그形式上에잇서서는 쉬운말로노래불러질만큼—即歌曲의形式으로制作하는길이어 韻律이라는것이다 그리고그內容에잇서서는 在來의詩歌의頹廢的享樂的利己主義的思想과趣味로부터大衆을隔離救出하고그들의具體的生活相과그들의社會的階級的地位를認識케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不平不滿의感情을抽出하야이것을맑스主義的闘爭精神에까지昂揚結晶케하는 感情과精神을담어야할것이다 그리하야이러케함에잇서서 內容과形式의統一을歟如함이잇다할지라도 그것은前言한바와가티 不可避의일이나 그러나 될수잇는대로在來의歌曲의形式을 例컨대아리랑가든것일지라도 利用할쌔에는 改良하도록힘쓸것을 이저버려서는안된다 그리고注意할것은우리의 詩歌의全部들이와가티現在의大衆의 最低한教養程度의水準에들어오라함이아니오 在來의歌曲或은새로운歌曲을利用할수잇는 形式에依한詩歌製作에努力하야 大衆化를劃策하라함일뿐이다

△ ▽

그럼으로 例컨대『우리옵바와火爐』나『네거리의順伊』가튼것을 또는그보다도훌륭한것을쓰기도하고 한편으로는孔君의『아리랑』과가튼것을 또는그보다도 훌륭한것을쓰기에努力하라는것이다 그리고小說도『過渡期』와『씨름』가튼것을 또는그보다도 훌륭한것을쓰는한편으로 맑스主義的思想觀點에서 大衆小說(그具體的方法은大衆小說論』과 重複됨으로 여기서 省略한다)의 創作을 힘쓰라는것이다 그러면 이와가티쓰기만하면『大衆化』의問題는解決될가? 그러나決코쉬노키만해서는안된다 여기서發表機關과機會의問題가이러나는것이다 이問題에對하야서는다음에別項으로論及하고 順序에依하야演劇, 映畫, 美術, 音樂等을考察하려한다

▽ △

둘재演劇問題를現在의우리의藝術運動의部門內에잇서서 美術 音樂映畫等이나마찬가지로(朝鮮內地에잇서서)거의그存在가업는現狀이다 다만一年에멧개의戲曲作品을볼수잇슬뿐이나 이것을우리의손으로한번도上演하야본일이업다 지난녀름에東京에잇는同志들로組織된移動劇團이京城에서公演을하고저하얏스나 上演不許可로 말미암아 公演을못한일이잇슬뿐이니 이事業은詩歌나小說보다도 여러가지意味에잇서서困難하다고본다 그러나우리는이것을 하지안흐면안된다

▽ ▽

一、脚本制作及 演出技術의不足 二、必要한資金의缺乏 三、演劇에對한比較的苛重한當局의×壓等은이事業의困難하게하는것이니 첫재必要한資金을만들기에努力하야移動劇場의準備를하야技術員養成에힘쓸것은勿論이오 地方의所謂『素人劇團』에서上演할것을提供하는意味에서脚本制作을힘써야할것이다 그리하야夏期와冬期에農村에서學生들과或은演劇團體가演劇을할때에언제든지우리의脚本을쓰도록活動하는것도必要하다 그리고脚本은印刷物로나타낸것을 上演하려함에도 支配階級은이것을不許可하는것이事實이니 脚本을쓸때부터 上演을생각하고서그表現에注意할必要가잇다

△ ▽

이것은 비단演劇에限하야만注意할것이아니오 우리의作品行動에잇서서 恒常注意하여야할條件이다 그러나이것을가르처맑스主義的思想觀念의 撤去乃至『武裝解除』『××的原則의抛棄』로 理解하는性急한 小兒的誤謬를犯하야서는안된다 우리는極端한×××度와싸우는한편으로 그檢閱아래에서라도우리의目的에合하는 作品을만들어야한다

△ ▽

여기에一段의技術이必要하고 더욱必要할지언정 決코『武裝』을解除할까닭이업다 그리하야오늘날우리가當하고잇는現狀에서도 훌륭히우리의 作品行動을取하면서 直接×××에對한大衆의注意를喚起케하야 全般的政治○○의事業을이르킬것이다 그리고이러케하는것은政治闘爭이다 내가어쩌하야서이러한말을 하느냐하면 우리들中에는 作品行動과 政治闘爭을混同하는傾向이잇는까닭이다 그리고 온갓利用할수잇는大衆的會合에서 單純한脚本의朗讀을하는것도 必要한일이다

現代詩의 彈力的要求 (三)

女性的官能藝術에서 男性的血躍詩篇으로

鄭蘆風

× 小肯定的人生觀 小理想主義的人生觀—事實當하야서現象의揚辨證的現實性 即醜한現實의揚棄로부터 展開될 다시말하면이社會의內包한 矛盾性의醱酵로말미암아 이社會의 안에서再的變質에까지 이를수밧게업는 이社會現實의辨證性을 것처서 그否定肯定의 正當한關係의 把握에서 發見한人生觀이아니라 다만現代外지 展開하야온

社會生活

에서 또는 그의產物인 觀念體系속에서 뭇조록이면 醜보다도美를 不滿보다도幸을 苦痛보다도安樂을 보고자힘쓰고 또노래하는一群의詩人 나의上記한 小肯定的人生觀者 또는小理想主義的人生觀者 이러한詩人은大概自己私生活의 小부르조아的인 物質的基礎우에서잇는關係上社會關係를省察할能力을 把持하지못함으로 由來하거나 또는그所謂傳來하는 宗教的人生觀이나醜避哲學者의所說에 歸依함으로조차由來하는것이나 自小心境의淺薄한凝觀에으치거나 또는流動的現實의要求에醱醸로하야금 그展開的變質의要求에關聯식혀 省察하지를못하고서 否定抽捨의小肯定이나 現實盲目의小理想에 溺沒함으로서 偉大한意識者—凡俗을超脫한 高級聖哲로自處한다 그리고서恒常現實生活의醜態는보지안는사람모양으로꼭人間生活의아릿다운 禮讚의詩歌章만을 生産하고자힘쓰고 못조록實感되는 醜態는發露하지안코 意識的으로 回避한다 毋論그肯定과理想이 醜한現實의 否定을內包한 展開的意義와의關連을것치서把握된

否定肯定

을實流하는 大肯定이거나 또는現實의醜態를正視하야 그內的關係의分析으로부터보아내 展開의不可避性의 科學的把握으로말미암아가지게되는『네오』理想主義, 現實과展開될未來의 統一的關連에서 發見한大理想과如한그基礎 어떠한科學의土台를가지지 [illegible] 안키니와이더한小理想 그實現的基礎를 가지지못하얏슴으로 小理想이아니라 空想과에는肯定 肯定의 對立的意義를 把握하지못하얏슴으로 써업는肯定에 香遊하는詩人들은 現實과는그만터距離를 가젓고 또그距離에서 더욱버그러지고자힘쓸뿐으로 그들詩篇의 大多數는 大略두가지傾向을 가지는것이 一般的現象이다 그一은·所謂大自然大宗教에歸依한詩篇의制作이요 그二는私少한人情을 取扱한哀愁의詩篇 또는享樂의詩篇의制作이다 前者中 大自然에歸依하는詩篇을즐겨쓰는이러한詩人의傾向은 그大自然과都市와의 對立關係를省察할수업는것은毋論이거니와 그大自然을두고 이러나는 地主階級과小作人의 葛藤을 發見하지못하는것亦是 事實이요 또[illegible]

地球宇宙

槪念遊戲에努力하거나 그러치안호면 조고마한江邊에안저서 발자욱이나 또더던지 드러다보거나 님이나 또는 숨곱질에서나 보아내는 그러한遊戲에 힘쓰는것이 常態임을보아낸다 그리고 感情遊戲 生活形式 우리靑年들에게 여야할 우리靑年들에게 하야서 엇더한 들수잇슬가 하는 도 품은能力을가진 또이러한詩人과가 한사람이라도 增 절에들 滅亡의구 넛는 第一步인줄 激도 가지지못하 나의享樂物이로다 自誇하야가며 구 作들을 힘쓰는詩 나만혼가?

享樂鬼 (五)

聖居山人

×

옥향이는 평양기생이엇다 집주사는 오늘아츰에 김진사한테서 무중을듯고 종일불쾌한 심사로지나다가 밤에 옥향이를차저갓다

『아모리 나히가어리더래도서 모는서모지……반말은웬반말인고……생아자도부모요 양아자도부모라면 부지첩자도부모(父之妾者父母)라하겟지……』

그는 아츰에 김진사가어린말로 점잔케 부중하든생각을하니 하도기가막혀서 우슴이 나왓다 그는지리부친이 로망이 낫나보다 라하엿다 그는 이런생각을하며 옥향이를 차저와보니 옥향이는 의외에도머리를싸고드러누엇다

『웬일이야? 어듸가 아퍼서그래……』

주사는 옥향이를흔들며 이러케 은근히무러본다 그러나 옥향이는아모긔척이업시 죽은듯시 드러누엇다

『아니 어듸가아퍼서그러는게야!—사람이 드는와도 귀척이업스니……』

『야 웨이리여보래요 남은들이아퍼서 죽겟구면!』

『응·몸살이낫나 웬일이야?』

옥향이는 별안간 이불을거더차고벌덕 나러나 안자며

『난 나리하고살지안켓소!』

하고 타!내배앗는다 이바람에 얼떨떨한주사는 어얼어벙벙해서

『무두무미에 그건다무슨소리야……』

『무슨소리는 누가무슨소리야……아모리 남의 첩노릇은할망정 나는 그런말은여적엇보지안헛소!』

『그런말이무슨말이야?』

주사는 더욱 궁금중이나서견딜수업섯다 옥향이는 명주수건으로 니마를 질끈동이고도사리고안저서

『량반은 항렬도모르는법인가? 진실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이겟지!……난남의첩으로는단여도 그런하대는 못밧어보앗소!』

『아니 누가하대를해……그애가뭐라든가?……』

『여간뭐라기만해……아주반말을거침업시하지안코……』

『조런 괘심한놈보앗나……반말을하다니……서모도역시부모인데 그런고한놈이잇나……』

주사는 일시 옥향이의환심을사려고 홍벅자귀를 부지서노핫다 이바람에 옥향이는마음이풀려서 금시로 아양을떨기시작한다

『여보!나리 거기는방이차요 이리로 내려안지시요 자!이요위로!……』

『아니 여긔도괜찬아!……』

『아니 참말어듸가 아푸거든 약을한첩먹지!』

『아니요!난 약보다도보석반지한개만 사다주—금향이가이빼오십원주고 사엇다는 것이퍽두조탑데다!』

『응!보석반지……암차차해주지—』

『차차가언제요? 누가당신집에서 늙어죽을줄안담—?』

『아니그럼 옥향이는벌서부터 딴배포를차린단말인가?』

『아이구 누가딴배포를차려요! 당신이야말로 달첩쟁이가무슨말이야!요! 왈똥만열정아!』 하고옥향이는알미운듯시 눈흘기가며 주사에게주먹을 겨누엇다

阿Q正傳 (三)

中國 魯迅 作 白華 譯

第二章 優勝記略

阿Q는 姓名과 原籍이얼마큼 아득하얏다 그뿐만아니라 그의前半生의 『行狀』도 또한 아득하얏다 그것도 말을하면 未莊사람들은 阿Q에게對하야 그저 일이나 그들이알라고하며 그러나 그를 놀님감으로나 여기고 원래 그『行狀』가튼것에는 興味를가지는者가업는까닭이엇다 그리고 阿Q自身도 또말아니하얏섯다 단지 가다가 남과말다툼할때 或어쩌다가 눈을 실슥하게뜨고서

『나도 以前에는—너희들보다 낫섯서? 너누구로아느냐!』

하고 말하는것이괴人것하는소리엇다

阿Q는 집이업섯다 未莊의土穀祠에 居處하면서一定한職業도업시 남에게품들이노릇을하며 보리를털다면보리를털고 쌀을씨라면 쌀을찟코 배질을하다면 배질을하얏다 일이만흘때에는 臨時로主人의집에서자기도하고 뭇이나면가버린다 그럼으로사람들은밧블때에는 阿Q를생각하지마는이는일시키자는것이요決코『行狀』外닭이아니엇다 一旦 일이업고보면阿Q고무에고모다이저버림으로 그의『行狀』가튼것은 더구나말하는者가업섯다 그런데한번 이러한일이잇섯다 어느늙은영감쟁이가阿Q를 치켜세여 『너는 아모것을시켜도 잘한다』고하얏다 이때 阿Q는딸독을쑥내밀고 구지레한볼로 나섯섯다 그늙은영감쟁이의 이말은 정말로듯지안코 亦是 嘲弄으로만녀기엇스나 阿Q는 뭇척깃버하얏다

阿Q는 또 대단히 自尊心이만하 未莊사람따위는 도모지 그의眼中에업섯다 甚至於 두부『文童』에對하야서도 一笑의價値나마 認定치아니하얏다 原來『文童』이라함은 將來秀才가될可能性이잇는者니 趙太爺와錢太爺가크게住民의尊敬을밧고잇는것은 돈이잇는外에모다『文童』의 父親인까닭이엇다 그러나阿Q의精神에는 格外의尊敬하는생각이 일어나지아니하얏다 그는생각하얏다 나도子息이잇스면 더크게되엇슬것이다! 그런데다가城안에여러번 드나다닌그는 自然이自尊心이 더커첫다 그러면서도 그는또 城안사람을 할보고잇섯다 假令 길이석자 폭셋치의 나무널로 맨든걸상을未莊에서는『長凳』이라고하고 그도 亦是그러케 말하는데 城안사람은 그것을『條凳』이라고하니 이것은 잘못이다 우습다! 고그는생각하엿다 또 대구를 지질때에 未莊에서는 모다 半寸되는 파닙새를 넛는데 城안에서는 파를 가늘게써러넛는다 이것도 잘못이다 우습다! 그러나 未莊사람들은 실로 세상풍편모르는 시골띄기들이다 그들은 城안의 煎魚도 보지를못하얏다!

阿Q는『以前에는 낫섯서!』 해서 見識이놉고 게다가『아모것을 시켜도 잘한다』니까 아조 한사람의完全한사람이라고할수잇는것이언만 惜한것은 그는 體質上에 좀 다만 하자가잇섯다 그의 머리우에는 언제 생긴는지 여러군데에 癩瘡疤(쥐무스럼을흔자리)가잇섯다 이것이 그몸의 것이지마는 阿Q의意思를 보면 그런치도못된것갓든듯 그는『癩』라는말을을휘하여 모든『癩』에가까운音까지도듯기를실혀하얏다 나종에는그것을차츰확장하여『亮』도안된다『光』도안된다 그뒤에또『燈』도『燭』도다안되게되엇다 누가죽음이라도 그런말이 다 그것이故意거나 아니거나阿Q는 머리속의번적번적하는쥐부스럼자죽을불근새 별케하야가지고 골을내어보아 [illegible] 阿Q가어더맛는 일이만하엿서 그는漸漸方針을 變更하야가지고 흔히는 흘겨보앗다

想華 送迎의片感 (一)

一九三〇年을마즈면서

鄭淳悌

一、回顧와展望

鐵光石火와가티 歲月은빨으다 우리人生은이가운데에서 날은現在를 쉴새업시 過去에보내고 새로운現在를 다시未來로부터 맛는다 그럼으로우리에게는 늘送迎의우슴과 눈물이아울러잇스며 또넷記憶과새希望이 間斷업시 連續하고잇다 多事多恨하든 一九二九年도어느듯 過去에屬하고 새力量새計劃을가진 一九三〇年은이미우리에게 새로운소리를힘잇게傳하고잇다

○ 해를보내고 해를마즐때마다 우리의感慨는 더욱無量하야지며 또우리의心身은 가장高調로刺動되나니 이는『現』이라는 고개와고개를 넘을때마다 現實暴露의悲哀를 如實히맛보와가는까닭이다 現在의모든時間을超越할수업는人間의모든作爲가그成敗興亡을또한이에依하야決定하야가는것입으로 이空疎腐敗한現在를좀더延長식혀가지고 그罪惡의우슴을 한번이라도더웃서보겟다는것들의 幻夢과幻舞도 이어설고개를넘어갈때마다 하나씩둘씩泡沫浪影과가티살아지고말며 이反面에는現在의內在的矛盾이 刻刻으로成長함을따라 未來建設에 그心血을기우리고잇는民衆들은 이世上에直面하면서 暴露되어가는現實에 해마다그陣容을整齊하야가며 作戰의새計劃을不斷히樹立하면서잇다

○ 그러나 民衆이여! 記憶하느냐? 못하느냐? 過去一年間의朝鮮民衆의 戰跡을 아! 이것을가삼속에 깁히印친者가 참으로 멋사람이나되는가? 그數를枚擧하기에 未遑하리만큼커다란暴風雨가 우리의大地를 거진거진쓸어바리고말지안엇는가? 急激한空氣의流動에는 반다시物體의큰動搖를 보게되는것이니 過去몃해를두고조금도잠잠할줄을모르든 그急旋風의作用은 朝鮮全幅에다참으로不少한動搖를보내엿다(中畧)

○ 그리하야 朝鮮民衆의全陣營은實로風前의燈과가티 그秩序를일허바렷스며 또氷國처럼그空氣가됨우 冷落하여젓다 뎌라서活氣를失하엿든 感이不無하엿다고 할것이다 말하자면昨今의朝鮮運動은 그發展의途程에잇서서 客觀的情勢와主觀的 여러가지關係로보아避할수업는 現階段即受難期沈滯期試鍊期乃至同期또潜勢的進展期를 通過하고잇섯다고할것이다 우리運動을全體的으로 大觀하고 總評한다면 勿論어느程度까지는 純化되고 統一되고또發展되거 暴현자최를 發見할수잇다하겟지마는 部分的으로보아서는아즉도分裂渾沌의狀態에서 分의序幕에서 完全히脫出하엿다고는 볼수업는今日의現狀에서 [illegible]

여기에 우리에게는 現實에立脚한 闘爭으로부터오는 不自由가잇다할지라도 이不自由는우리가過程의犧牲임을알아둘것이다 우리人間의現實에는苦痛과風雨가 不絶하지만은 이現實을 똑바로보고 그根底로부터 모든것을 바로잡으라는우리의猛烈한努力에比하야 이現實을보고도 일부러못본체하면서 오히려이것을 超越하야보랴는 자들의 無智와卑怯으로만 可憐한가 究竟의眞理를向하는眞摯하고果敢한우리의 態度와行動은 곳時代와社會의反映에서 空虛와間隙을찾고 이것을埋葬하고 補한그우에다가 [illegible]

이러한非常한 興廢에잇서서는 各方面으로부터 [illegible] 現狀이 만히 일어나게되는것이니 이때에 對한우리의 聰明한觀察과 가장 果敢한 戰鬪를 要求하게되는 [illegible] 그리고問題의焦點을 如實히把握한뒤에는 다맛意識의鍊磨와力量의成長을 두려워하는데에 不過할것이니 이에對하야우리는 그大勢의 進展을 [illegible] 아오즉倍前의準備를 거듭할것뿐이다(中畧)

[illegible] 함일것이다

○ 그러면 우리는 完全한結合에서만 우리의運動을 展開식힐수잇는것이니 곳이完全한結合은 秩序를前提하며 分業을意味한다 그리고精神의確立과態度의鮮明을 要求한다 千障萬礙를 退治할수잇는 確實性即動搖性의根絶에서 眞實과勇猛으로써 그態度를 定한然後에라야 비로소 堅實한同志的批判力을 所有한然後에라야 비로소 主義의精神으로써 自己의精神을 訓練식히게되는것이니 이러한意味에잇서서 반드시 철저한結束은 各自意識의透明化에서 또그水準의統一에서만오는것입으로 우리의日常누르짓는 非組織大衆의組織化도 이러한條件을 基準으로하지안이하면안될것이다

新刊紹介

◇朝鮮講壇(新年特輯號)中國現下情勢(安在鴻) 中露關係發端回顧(李瑄根) 一年間世界事柳完熙 金解禁三大測度(徐椿) 朝鮮人經濟回顧展望 鄭秀日 朝鮮文法講話 李秉岐 其他女性問題 文學希望及劇映畫詩歌創作等滿載定價四十錢發行所京城堅志洞八〇朝鮮講壇社振替京城五七五七番

◇新人間(新年號)定價十錢發行所京城府慶雲洞八八新人間社振替京城一四五一三番

◇되는대로(小說雜誌創刊號)定價二十五錢發行所平壤府上需里六五金世鐵家

◇어린이(新年特大號)定價十五錢發行所及振替番同上

◇學生(新年號)定價二十五錢發行所及振替番 同上

◇速記研究(一月一日號)定價十錢發行所京都市上京區千本通鞍馬口土東入ル京都速記研究所 振替大阪五五二六四番

◇時兆(一月號)定價十錢發行所京城東大門外回基里時兆社振替京城五七四三番

謹賀新年

興上

咸鏡線興上驛前 地境金融組合 組合長 金弘業 理事 金知淵 監事 [illegible] 朴[illegible] 安[illegible]

咸鏡線興上驛前 綿布穀物肥料貿易商 徐景漸

咸鏡線興上驛前 穀物貿易商 韓韶桓

咸鏡線興上驛前 金物商 韓煥用

咸鏡線興上驛前 綿布綢緞고무靴商 高炳郁

咸鏡線興上驛前 興上合同運輸組 代表者 柳和奭

咸鏡線和上驛前 興上郵便所長 李東纁

興上驛前 地境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鏡線興上驛前 雜貨商 李泰根

咸鏡線興上驛前 海東釀酒所

咸鏡線興下驛前 三省醫院出張所 韓翊桓

咸鏡線興上驛前 布木商 八福商店 徐象淳

興上警察官駐在所 一同

川西面 私立興一學校 職員一同

川西面興德里 朱鍾乾

宋伊面五里所里 韓河錫

青松警察署 職員一同

青松

青松郡青松面事務所 職員一同

青松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青松邑內 司法代書人 尹八憲

青松邑內 尹商榮

安東郡臨河面縣下洞 鄭永模

安東郡吉安市 酒造業家 權重淵 柳甲生

安東郡吉安醫院 醫生 白泰欽

青松郵便所長 久光政次郎

青松邑內 司法代書人 渡邊鶴彥

青松邑內 司法代書人 尹鎔植

青松邑內 尹澤鎭

青松邑內 金昌鎬

青松郡巴川面德川洞 沈相元

青松郡巴川面德川洞 道評議員 沈相光

青松邑內 德順和支店

青松邑內 泰興東支店

青松邑內 監記號主 劉春章

安東郡吉安面 協議員 金秉轍

安東郡吉安面九水洞 酒造業 金達五

安東郡臨河金融組合 評議員 金崇鎭

安東郡吉安市 理髮業 金德圭

安東郡吉安面金谷洞 鄭太鉉

禮山

禮山郡 綢緞布木商 朴右根

禮山郡大興面上中里 李[illegible]敎

禮山郡 忠南電氣株式會社 電話一一五番

우리洋服店 李甲得

禮山郡 錦昌源 七星理髮館

忠南禮山郡禮山面禮山里 委托業 廣信商會

禮山邑內海東醫院 吳[illegible]泳

禮山郡禮山邑內 順天病院 李鍾大

禮山郡禮山面禮山里 面協議員 貿易商 成觀永

禮山郡禮昌商會 申海均

禮山湖西釀造所 權泰俠

禮山郡禮山面禮山里 德昌旅館 趙[illegible]

禮山郡大興面大興 尹敬永

禮山相信商會 金[illegible]

禮山郡大興市 大興精米所

禮山郡 [illegible]淨行

禮山郡禮山驛前 禮山精米所

禮山香源酒製造場 李起築

禮山新陽面長 成赫濟

禮山 黃鶴柱

禮山郡禮山里 朝鮮料理業 大觀園 印碧天

禮山郡大興面長 [illegible] 主

禮山郡禮山里 李完鍾

禮山里 司法代書 [illegible]

禮山里 李興信

[illegible]山 金益培

禮山邑內 安鍾遠

禮山郡 尹昌奎

舒川

舒川郡東面板橋里 朴性達

舒川邑內 丹生仙次郎

舒川邑內 洗心堂醫院

舒川邑內 兼平虎一

舒川郡吉山浦精米所 李寧武

舒川郡舒川面新松里 朴宇錫

舒川邑內 羅錫周

舒川邑內壽福自轉車店 金壽福

舒川邑內裁縫業 李昌燁

舒川邑內芳春館妓生 李花蓮

舒川邑內芳春館 鄭成龍

舒川郡馬東面山西里 朴鳳安

大田

湖南線豆溪驛前 豆興理髮館主 朴春甫

論山郡豆磨面石溪里 金貞默

大田郡鎭岑面松亭里 崔淵

論山郡豆磨面夫南里 七星閣

論山郡豆磨面豆溪里 金容誠

論山郡豆磨面石溪里 林基昌

論山郡豆磨面公立普通學校 李成龍

論山郡豆磨面公立普通學校 趙錫周

論山郡豐磨面新都內 淨土宗 布教員一同

論山郡豆磨面龍洞里 上帝教總本部 金仁泰

一年의朝鮮女性은 장차어써케변할것인가 (五)

그의思想! 趣味! 娛樂! 美容其他

女流舞踊家 崔興淑女史

대학부속병원이 비과에 근무중이신명대혁(明大赫)씨부인육중학동 자택에 찻기는이날오전이엇습니다 바로 아츰설거질이씃난뒤엇는지 마루에 괴자를마지하는부인은 머리에 수건을쓰고저고리 소매가 두서번걷혀잇섯습니다 일본식옷장 파란니불책상이 목드러찬 건넌방에괴자들안내하며

『아이구이러케추운데……』하고일가홀 주섬주섬 거더노핫습니다 일즉히 리화보육과를마치시고 다년간 천진한어린이들을 손수거느리고게섯다는 부인의

똑진양을보 괴자는

『아조구식부인 맵시를 하섯습니다그려』 하고우스니

『비 쪽편리해요 별로 나가지는안치만 참분치마를 입으면집에잇슬때는 불편하니까 두가지들것추게 되지안혀요? 권에입든옷도 잇기는하지만…… 집에눌드러만 잇스니까요흰옷들이(남편괴자긔) 려행을간다든지또함의어떤곳에 갈때가틀때는 신녀성으로차리지만 그밧게 혼자단닐때는이러케하는게조화요』하며보기조케 붉으레한 뺨에 한층더 붉은빗을 도두며 미소가흘럿습니다

『식구는여러분인가요?』

『시아버지시어머니 그리고시누이 우리들이지요』하며난치서너달된다는 어린따님에게

젓을물렷습 니다 괴자는 속으로 귀어린애는 웬셈에넷치안나하며 『더리신구충돌은 업서요?』

『서로감정을내면 살수잇서요? 말은업지만 아모래도점은사람들의생각과 늙은이들의생각이 꼭가틀수야잇서요만 아모또록늙은이들의마음을편케해드리려는생각으로 지내니까 괜찬허요하며 부드럽고도 나직한음정으로 상긋상긋우서가며 이야기하는모양은 지나간날의 부인되리상적 보모생활을 넉넉히엿볼수잇섯습니다

『늘댁에만게서요?』

『비쪽집에만잇습니다 처음결혼하고 얼마던가는 별로모르고지냇드니만 요새는 좀갑갑한듯해요 때때다시나가서 무얼좀해보고십흔생각도 잇습니다만 인제아달린것도잇고 어되되겟서요! 더구나 시부모님이게시고 애아버지는 종자괴 연구하는것이잇서 밤늣게야 도라오시니까 도모지나가게되지 안혀요 아직이야 그러서부모님 생활이지요 모도다주관하시니까?』하며 어린애를다시 자리에누엿습니다 괴자는어린애게로 눈을옴기며

『어린애가나면 살림에더이착이생긴다는데요』하고무인을바라보앗습니다

『비 그런모양이애요 애들낫키컨까지는 **늘냅사먹고,** 잇는데관집갓흔것은취음에는 입것을쓰도그저숙소로옴기거나 친구는 생각되엇지요 더구나실컨 사괴고들은햇스니까 그러면은남에 간것가태요 그러더니 요새는좀 내집갓기도하고 또내가 잇슬집이라성는생각이나요』하고우섯습니다

『그래자미는요?』

『자미요? 살림이겟지요만이젠좀돈이변으로는 나갈수 업스니가살림에 재미붓쳐고 이런저살지요』하는부인의말을듯고니이괴자는도한마듸 물엇습니다 부인은우스며

『모ㅡ던걸? 요? 무어니무어니하고 도도(道)붓치려면 모다취미가 달으니까요 권도모지남의하는일에 대해선 이러타커떠타탈할 생각이 업서요 다제가조화하는일이데요』하는

부인의볼은 빵 누르더운살결을바라보면서 괴자는

『화장은요?』

『별로하시 안습니다』

한 목으로 부인의그런이관 어대드니보려하엿스나 『실컨사괴도고……』하든 부인의말을 이얼뜻머리에떠돌앗슴으로 오든길을주춤하고 지내간날 단란한 부인의 런애당시의 한장면을 그려보앗습니다

當選童話 아버지의원수 (二)

李德成

창룡이 아버지는 이마을에서돈째가라면 설어할만치 고기들씩잘잡는어부(漁夫)엿습니다

모도들 고기한마리 잡어가지고들어오지못하는 날이라도 창룡이아버지는 어느때나 채롱이나큰통으로 고기를 가득가득하나식 잡어들고 들어오셧습니다

이때는 날마다바람이 몹시부럿습니다 그래서 달은사람들은감히나서 바다가에도 못나가것만 창룡이 아버지는 며칠씩산쌤이가튼 힌물결이용소슴을 처서뛰여넘어나며 집채가튼 물쌤이가몰려들어오는 무서운 바다위로고기들잡으러 나간다고 드리욱여댓습니다

『글세여보! 이런께풍세(風勢)가사나운날두은 고기를잡으러나간다고이러시우오늘하로 쉬다고당장 굶는것도아닌테만약 나갓다가 무슨일이나잇스면 엇저우 제발좀오늘하로만 들어안저게시오』

『글세왜이리 사람의마음이약해! 나는 수십년을 내리두고이노릇을 해왓지만은 아모탈이 잇섯는데 무슨다 틀림이 잇슬리잇소』

『글세 웨그리고집을세우시오 사람의일이란 알수업는게아니오 그러니오늘 하로만쉬시구려』

『글세아모렴려말고 창룡이하고 집에서 가다리기나 하구려……』

창룡이 아버지는 그어머니가 별염을 다ㅣ해가면서 만류하는것을 듯지안이하고 고기잡이배(船)에올나 누구보다도 속으로향햇습니다 어쩌도를접이용소슴을치든지 창룡이아버지의배조차진보히지는 안엇습니다

창룡아버지가 그가티 바람몹시부는 무서운날 고기를잡으러나갓다는말을들은 그동리사람들은

『그사람이 정신이업나 이러케험악한날 고기를잡으러가다니……큰항(凶)変으로 무사히도라오기나 햇스면……』

하고 걱정들을 하엿습니다

창룡아버지의배는 힌물결을헤치고 산쌤이가티 몰려들어오는파도속으로 작구작구 홀러나갓습니다

『아이그 바람도지긋지긋하게분다 바람이 나얼는 좀잣스면……』

하고 어머니는두근거리는 가슴울것잡지 못하면서 멀니살아저가는 그남편의배를 눈물어린눈으로 바라보앗습니다

주르륵…… 쾅! 쾅!

창룡이 아버지는 바다위로오리나나와서야 닷을내렷습니다 골롱내들쓰내며 담배한대를 갓가수로 부처물고 사면을둘너보니 바람이 앗가보다 커욱이자는것갓고 물결도그리심히 뛰놀지안엇습니다 그래서창룡이 아버지는 닷을올리고 돗을달엇습니다 그리고그물을물속에다집어너헛습니다 배는살가티 내여닷습니다

이가티 불어오는 바람에쌀아북쪽으로 또남쪽으로 두서너번오르나리든 창룡이아버지는 뜻박게고기를 만히잡고 홀로깃버하기를 마지안엇습니다

창룡이아버지는이가티만히잡은고기들가지고일는돌아가서그안해를깃부게하리라는생각에배人머리를 나아가서 그물을쓸어올리려하엿습니다 그때 별안간에푸른물결이 두갈내로 쪽갈나지면서물이용소슴을치더니큰고래한마리가불쑥로나타낫습니다

『애! 이고래 봇쳐크구나』

하고창룡이 아버지는 부지중에소리치자마자갑작이겁이더럭나서 뒤로주춤주춤 물러섯습니다 큰고래는창룡이아버지의태도를비웃기나 하는듯이 홀넉재수를넘더니 배밋흘돌어가는바람에배는물방울가티 질듯 키엽흘로기우터젓습니다

『에쿠!』하고배속에 나둥그러젓든창룡이 아버지는 다시일어섯습니다 고래가 배밋튼도떳차레나를 넘어드는바람에 창룡아버지는 배겨기우려지는 바에몃번이나 넘어젓스나 맨마즈막에굴근통아줄에매인질다란쇠ㅁ창이를집어들고한번에나리치라고별는고 잇섯습니다 고래는컴컴더 귀가나서 오른쪽으로또또왼쪽으로 써거도라단이면서 배를흔들엇습니다 그바람에 물결이뛰놀고 파도가솟하지여 배는가랑닙피리가티흔들립니다 그가티머당하든창룡이 아버지도엇절수가업든지 치여들엇든쇠ㅁ창이를힘업시 아래로느러트렷습니다

벗에게

柳雲卿

고히핀◇ 내동산의한떨기쏫은
사나운비바람에시들엇습니다
사나운 비바람에시들엇것만
아직도 곳세인 뿌리는 뻐
혓슴니다
아직도◇ 곳세인 뿌리는 뻐
혓슴니다
어여쁜 쏫포기는피지못할가
어엽분 쏫포기가피지안어도
단단한◇쏫망매가 싹올릅니다
단단한 쏫봉매가 싹으릅니다
볏(陽)과바람 자로둘너 탕
식될때에
풋설매는작구작구자라남니다
풋쩔매는작구작구자라남니다
고히핀◇ 내동산의한떨기쏫은
사나운비바람에 시들엇습니다
사나운비바람에 시들엇것만
아직도 곳케인뿌리는 뻐혓
슴니다

라듸오 (八日)

午前一〇、三〇 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一一、〇〇 料理講法『선기약탕』 ▲正午時報 뉴ー스

午後〇、二〇라듸오學校▲二、一五趣味講座▲三、四五 뉴ー스 官廳公示事項▲五、三〇 인그리쉬히아링 에듸ー벤넷트▲六、〇〇 兒童音樂講座(東京)世界音樂地理(의스트ー五페ー지)牛山充▲六、三〇 南道短歌一、短歌二、沈滿歡外朴綠珠▲七、一〇뉴ー쓰、官廳公示事項▲七、二五講演『新春을마지하야』京城商業會議所 會頭渡邊定一郎▲八、〇〇 落語▲八、三〇新內(東京)▲九、〇〇連續講談(東京)次郎長外傳 森의石松第二席 神田伯山▲翌日順序發表 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時報

劇團의曉星 (五)

石金星

代理石가튼女人 눈물을흘리는役이適役

과일중에슬슬녹고향긔만흔『파인애풀』 배우자를말한다면그저그마음하나뿐

新興土月會『스타ー』篇 (3)

나는눈이랍니다
겨울에나리는눈입니다
녹기쉬운눈이랍니다
나의얼골은 너무희어서 차되차보히지요?
그러나나는겨울의쏫입니다
아름답고 쌔쯧한쏫이애요
나는녹기쉬운눈쏫이랍니다
고두름으로변하는 눈쏫이랍니다
그러나여보서요
나를녹기쉬운눈이라고하지만
나는결코결코녹지안는 아라스카의눈이랍니다
아라스카의눈쏫이지요

◇

누구나 그를대할때에는 그에게서이러한 조흔노래를 듯는듯함것이다

◇

토월회(土月會)의석금성 (石金星)양은 후진인 김련실 (金蓮實) 강석연(姜石燕)의두처녀에비하면 사실그대로의 토월회의원로녀우(元老女優)이다

벌서 오년전ㅡ광무대(光武臺)의무대우에서 몃번이나 그의요염한자태를 보아온 괴자는토월회를방문하자 곳그를 차젓스나 맛츰감긔로 병중이라하야 맛나지를못하고 그이튼날 되는밤에 아역시조선극장가무회에서비로소그를맛나게되엿다

『극장…… 퍽오래간만이십니다 그런데어듸가 편치 아흐시다더니 좀엇더십니까?』

『일긔가 갑자히치워저서감긔가드럿서요 그러치만 지금은 퍽나엇습니다』

퍽나엇다면서도 련해코를 훌쩍어리는것을 보면몸을감긔는 아즉도덜나흔모양이다

『그런데 당신은몃살에 이되십니까?』

『스물넷입니다』

녀자의 나히를뭇는것은 실례가아니나라는드시 그는여괴서 괴자의얼골을한번처다본다

『무대극(舞臺劇)은 언제부터하엿습니까?』

『오년전부터입니다 토월회에드러와서 생후처음 무대라는것을밟어보앗습니다』

『그동안 오년동안을일관하야무대생활을 계속하엿습니까』

『아니요 토월회의사정도사정이러니와 또키의 개인사정도허지안어서 그동안 무대생활을 몃번이나 중단하엿다가 이번에다시토월회에입회하게된것입니다』

『극계(劇界)에 나온동긔 (動機)는?』

『아무동긔도업습니다 다만세상에대한 모든 희망이업서첫슬때 새로운삶의길을 찾기위하야 무대라는것에 나의전생명을 밧치려햇든것이 그커동긔라면동긔이지요』

과연토월회의 원로 녀우인만치 문답에사소한거침도업다

『량친은게십니까?』

『네두분이 다서울에게십니다』

『학교는어듸를다니섯습니까』

『학교는 별로히단인일이업고 집에서간단히 학교 공부를하야문맹(文盲)만은간신히면하엿습니다』

로숙한그의말은 문답이 계속될사록더욱닷이난다

◇

『고향은요?』

『서울이여요』

『취미로는요?』

『조선가무(歌舞)이구요』

『과실로조화하는것은』

『파인애풀이조화요』

『그리고 영화배우중숭배하는사람은누구입니까?』

『활동사진을 만히못본관계로 잘알수는업스나 눈물의 희극을 잘만드는『찰푸링』이 조하요』

말은활동사진을 만히 못보아서 잘모른다면서도 비교적감상(鑑賞)의 눈이고급인 그의말에 괴자는 다시한번 탄복하엿다

『찰푸링요? 퍽훌륭한배우들숭배하십니다 그려』

『아이벌 말슴은……』

여괴서 그는비로소 미소ㅡ

『다년간 무대경험에의하면부스역(役)이 가장적역 (適役)이라고 생각합니까?』는괴자는만능녀우(萬能女優)인그의가지가지무대자태를 머리속에 련상하면서특히 그의말을듯고자 이러한질문을던지매 그는한참동안생각하다가

『글세 웃는연극우는연극도수업시 해보앗지만 그중에도 『갓난이의 설음』의갓난이 『아리랑고개』의 봉이(鳳伊)와가튼권원의커녀(田園處女)의역이가장적역인것가태요』드는로화에 (話題)를 몰리어새해의감상을무른니

『새해라고 별다른감상이잇것습니까다만온갓조선사람의생활이 모다유복하게 되어서토월회가극단이더욱더욱잘되기를바랄뿐이요』

라고말하고니어서리상적배우자는어던사람이냐라는것을뉴르매 그는

『리상적 배우자라고별사람이잇겟습니까? 그커마음만마시면리상적배우자라고 하겟지요』

세상의온갓 신산미(辛酸味)를다맛보든듯한로런한그의말은드르면드를사록새로운맛이 나는듯십헛다(사진은석금성양)

謹賀新年

京城

황송하오나 本年은다못新年紙上으로써年賀에禮를略하얏사오니 恕諒하옵소서
京城三角町(曲橋)一番地 咸錫泰齒科醫院 電話光化門七九番

京城府橋南洞三十一番地 京城消費組合創立事務所

喪中禮欠 京城府齋洞七十三番地 朴成鎬

004467

京城鐘路三丁目八〇 新舊書籍都散賣 三光書林 振替京城一三九一九

京城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朝鮮고무工業所 中央商工株式會社 서울고무工業社 萬世고무工業社

京城府西界洞一二一番地 ザクラ粉製造所 主 金熙準 李承煥

青松

青松郡廳職員一同

青松郡巴川面中坪洞 申壽元

安東郡吉安面事務所 職員一同

安東麯子株式會社 吉安出張所 鄭亨模 權丙三

平澤

京畿道平澤 平澤醫院醫師 崔鍾完 電二十番

振威郡西井面石井里 安仲公普學校訓導 李溥淵

振威郡玄德面[illegible]井里 李敏浩

振威郡靑北面閑山里 金華釀造所 金華植

振威郡古德面杜陵里 金榮相

振威郡靑北面玄谷里 面長 申贊雨

振威郡靑北面玄豆里 和洋雜貨商 方正孝

振威郡靑北面玄谷里 吳[illegible]

振威郡靑北面魚沼里 金[illegible]基

振威郡靑北面魚沼里 金鎬憲

振威郡靑北面魚沼里 安仲金融組合理事

平澤 平和醫院 院長 金炳龍 電十一番

振威郡西井面石井里 趙吉九

京畿道振威郡古德面杜陵里 安在鳳

車輦館

京義線南市驛前 鐵山金融組合事務所 理事 李日燦

京義線車輦館驛前 面協議員 鄭禹泳

平北道鐵山郡 郡廳職員一同

平北鐵山郡 鐵山警察署

長城

長城郡 北下面職員一同

長城郡 大本山 白羊寺

湖南線新興里驛前 朝鮮藥酒 朝鮮栗林酒造場

湖南線新興里驛前 谷崎精米所

湖南線長城驛前 鮮明印刷所 司法代書所 主 柳寅秀 電話四一番

湖南線長城驛前 佐藤安藏

井邑

井邑郡淨土面山北里 有志 都連澤

井邑郡淨土面山北里 有志 梁三逢

井邑郡淨土面水金里 徐厚建

井邑郡梨坪面八仙里 有志 金斗榮

安東縣四番通八丁目四番地 膠皮工業 精米業及 貿易委託 朝鮮商工社 長電話(日)三六二番 電略(テウ) 電話七二二番

扶安郡白山面河淸里 朴海鎬

井邑郡北面[illegible]湖里 [illegible]

湖南線新泰仁 岩森清

井邑郡淨土面北面 金大坤

參禮

全北參禮邑內 李承鳳

全北參禮邑內 大昌旅館 主 張斗順

全北參禮邑內 金[illegible]

全北參禮邑內 金銀細工所 主 白成南

全北參禮邑內 朴[illegible]石

全北參禮邑內 鄭元順齒科院

全北參禮邑內 崔炳基

全北參禮協和會 幹事 坪井鶴次郞

全北參禮 倉運送店 主 李承玉

全北參禮面事務所 木村安治

全北參禮邑內 店主 蘇榮奎

全北參禮面石田里 崔應鎬

全北參禮碧城時計店 主 [illegible]

全北參禮邑內 大盛商會 主 宋禹相

全北參禮醫院 醫師 李寬鎬

全北參禮邑內 酒造組合長 權日用

全北參禮邑內 小林宗十郞

全北全州郡參禮邑內 店主 李鐸承

安東

安東縣三番通 海陸物産委託販賣回漕運送部 三省公司

安東縣大和橋通九丁目六番地 金谷園 電話四三二番

謹賀新年

康津

康津郡廳 李浚鎬

康津郡萇岩面事務所 尹在悅

康津郡萇岩面龍花里 金南植

康津面東城里 車庚模

康津郡東面經川里 金在天

金柱炫

康津面牧里 車敃洙

內藤源次

康津警察署

康津邑內 李基柱

康津郡康津面東浦里 酒類製造者 金吉星

金仁培

康津郡道岩面 萬德酒類釀造所 主 呂基壽

康津郡嵋川面壺山里 申泰星

全南康津邑內 金安植

康津郡道岩面新基里 金在春

康津郡道岩面石門里 李性洙

康津郡東面 職員一同

車鍾彩

細田榮穗

康津郡康津面牧里 精米業 劉載義

康津郡廳

康津郡郡東面烏山里 有志 吳璐煥

大和

平昌郡大和市場 利川旅館 主 李明[illegible]

平昌郡大和市場 衡平社大和支部

平昌郡蓬坪面所 面長 金[illegible]岳 書記 李富山 野[illegible]達 高英[illegible] 曾圭鉉 鄭敎永 崔成杰 [illegible]龍煥

平昌郡大和市場 ライジングサン石油株式會社特約店 綢緞布木貿易商 開城商店 崔淳亨

平昌郡大和市 金融組合職員一同

平昌郡大和市場 大和酒造組合 組合長 金振宗 理事 劉銘和

平昌郡大和市場 委託販賣 興生組合

平昌郡蓬坪市場 蓬仙釀酒所 李鳳基 朴容九 邊東壽 辛在御

平昌郡大和市場 海陸產物委托販賣 穀類大豆貿易商 江和商會 張明洙

平昌郡蓬坪面白玉浦里 金組評議員 河準求

平昌郡大和市場 和昌商店 朴道燮

平昌郡大和市場 面議員 辛元集

平昌郡大和市場 松都商店 許範

平昌郡大和市場 大和理髮館 權寧燉

平昌郡珍富市 珍富釀酒所

平昌郡蓬坪面蒼洞 有志 申士元

光陽

光陽郡廳 職員一同 各產業團體

光陽郡津月面烏沙里 崔瑨鉉

光陽郡津月面眞亭里 安珣玉

光陽郡津月面烏沙里 金生鉉

光陽郡光陽面邑內 光河自働車部 洪在圭

光陽郡津上面蒼岩里 禹東完

光陽郡玉龍面土竹里 李東宇

光陽郡津月面眞亭里 朴一淳

光陽郡津月面望德里 朴鍾洙

光陽郡津月面車蛇里 安綱鎬

光陽郡津上面蒼岩里 梁元錫

光陽郡津上面蟾居里 晉陽旅館主 鄭寬洙

光陽郡多鴨面新院里 桑苗山竹苗蠶種果樹苗生產 源生種苗園 主 李源生

光陽郡津上面蟾居里 高光倫

光陽郡津上面旨九里 金鉉周

光陽郡玉龍面 職員一同

咸安

咸安郡代山面下基里 安時中

咸安郡山仁面入谷里 李鏞燮

咸安郡伽倻面新音里 安今中

咸安郡漆北面華南里 安鍾允

咸安郡邑內 李圭錫

咸安郡郡北面中岩里 司法代書人 趙英來

咸安郡伽倻面末山里 伽倻消防組

慶南咸安郡郡北面 面長 朴文昊

慶南咸安郡漆北面 面長 黃璲壽

慶南咸安郡法守面 面長 李鉉喆

慶南咸安郡代山面 面長 李根榮

咸安面職員 書記 姜大承 同 具載永 同 朴永泰 同 趙漢國 同 李南根 同 崔正奎 同 趙圭瑆 同 金基洪

伽倻面職員 書記 趙慶奎 同 柳基永 同 安昇重 同 安順中 同 安泰中 同 李四弘 技手 姜命奎

竹南面職員 書記 安鍾韶 同 鄭熙三 同 姜大漢 同 鄭三仲 同 趙鏞鳳 同 金士龍

山仁面職員 書記 李建中 同 盧燦愚 同 安根鎬 同 安秉鎬 同 金昌軻 同 李會均

代山面職員 書記 安商泰 同 李壽檜 同 金燦圭 同 安琪烈 同 安商璜 同 安商昱

艅航面職員 書記 洪鍾太 同 李炳奎 同 洪象宇 同 金鏞熙

漆北面職員 書記 孫[illegible]秀 同 文[illegible] 同 朴[illegible] 同 姜[illegible] 同 河[illegible] 同 周[illegible]

咸安郡咸安面鳳城洞 黃汝奎 韓胄愈 金相泰

咸安郡代山面平林里 盧鴻國

咸安郡伽倻面道項里 趙率濟

咸安郡郡北面東村里 趙檜濟

慶南咸安郡[illegible]南面 面長 趙秉錫

慶南咸安郡漆原面 面長 黃鎔奎

咸安郡郡北面小浦里 金東八

咸安郡代山面平林里 盧文輪

咸安郡代山面富不里 李鍾洙

咸安郡邑內 丹羽[illegible]

咸安郡邑內 中原孫一

咸安郡邑內 巴水旅館

咸安郡邑內 永河[illegible]

竹南面警察官駐在所

咸安水利組合 松山由三郎

咸安郡艅航面外岩里 李寧[illegible]

咸安郡艅航面外岩里 李[illegible]介

咸安郡山仁面內仁里 李鉉[illegible]

咸安郡伽倻面道項里 曹[illegible]煥

咸安郡邑內 綢緞布木 李泰基商店

咸安郡邑內 司法代書人 韓相熹

咸安郡艅航面外岩 安在遠

咸安麯子製造組合 組合長 李鎭宅

咸安郡邑內 咸安協同組合

咸安郡伽倻面末山里 金泰興

咸安郡郡北面中岩里 順元醫院

咸安郡伽倻面儉岩里 喪中欠禮 李成烈

咸安 前野福藏

咸安驛前 咸安協同組合

咸安郡 李秉錫

咸安驛叺取扱店 趙鎭奎

慶南咸安郡咸安面 面長 姜大浩

慶南咸安郡漆內面 面長 沈相協

慶南咸安郡山仁面 面長 李鉉培

慶南咸安郡伽倻面 面長 尹仁孝

咸安郡漆北面 具士文

咸安驛長 有松榮藏

石井運送店

金振德運送店

南鮮運送店

咸安農場

第二水利組合

咸安郡農會

咸安郡山林會

咸安郡畜產同業組合

咸安郡咸安面槐山里 槐山釀造場

咸安郡山仁面第谷里 山仁釀造場 李珍永

咸安郡山仁面釜峯里 普興釀造場 成樂文 成樂珍

咸安郡伽倻面儉岩里 儉岩釀造場 趙萬奎 趙旋奎

慶南咸安郡邑內 咸安釀造場 主 全倚武

咸安郡伽倻面末山里 伽倻釀造場

咸安郡漆原面龜城里 周馝洪

慶南線咸安驛前 綢緞布木 洋品毛物 朴承甲商店

咸安金融組合 理事 片山繁太郎

咸安郡伽倻面新音里 安武烈

咸安郡漆原面龍山里 權泰鍊

咸安郡咸安面大山里 李南淑 李元世 李元淑

咸安郡咸安面大山里 李璟根

咸安郡山仁面◇仁里 李鉉覺

咸安郡咸安面鳳城洞 辛德祚

舊勞働會員 廿三名拘禁
석방된사람은세사람뿐
江景新舊勞働者衝突

긔보=신구로동조합의 분쟁으로 강경경찰서에 구금된이는 긘부 구로동조합원으로 일월이일부터 오일까지 검속자가 이십삼명중 석방자가 삼인이엇섯다는데 당국측도사에 의하야 특하얏스면 현재구금자는 유죄를처결될듯하다하며 신로동자측에서도 고소를 데리하기로하엿다는데 사세는 점점험악하게되는모양이라더라(강경)

눈속에든 十二名救助
간신히모다 구조되엇다

일본대학산악부원조견(日本大學山岳部員組見)(三)등일행십이명은 작년십이월 이십륙일에 북알푸스(北앞스)의침목(針木)에등산하야 재작년 조도관대학 산악부원 이십여명이 조난당하여 그중네명이참사하든 현장에 이르려서 「스키-」를연습을하든중 시난이월 오후열시경에 또돌연히 눈사태가나리면서 열루명이 전부눈속에파뭇치엇다가 요행눈을 헤치고서모다 구조되어 나왓는데 그중에수명은 동상을 당한자도잇다는바 이것이금년 최초의조난이라더라(동경전)

電車와 『써스』衝突
륙일아츰에

륙일오전아홉시십분경에광희문(光熙門)행전차일백이호와경성역(京城驛)행 부영써쓰 일천칠호가 명치정(明治町)정류장부근에서 치면으로 충돌하야전차와 써쓰가함께 운전수대가파손하엿스나 다행히 부상자는업섯고 이때문에 약삼십분동안이나 전차가서잇서서 대단히혼잡하얏섯다더라

新年劈頭 龍岩浦의火災
삼호가전소되고진화 前後두時間을탓다

지난이일 오후열한시 반경에룡천룡암포운흥동(龍川龍岩浦雲興洞) 음식점김중련(飮食店金重鍊)의집에서불이나서그부근이호를 전소하고 약두시간만에소방대의 진력으로 진화하엿는데룡암포에서는 드물게 보는큰화재이엇고 손해는 약팔백원가량이며 원인은 실화인듯하다더라(룡암포)

寡婦의 嬰兒壓殺
사실발각되어 검사국으로송치

전북임실군임실면성가리(全北任實郡任實面城街里) 전참봉문창수의장녀(前參奉文昌洙長女)문공례(文孔禮)(三三)는지난십오일에 아희를 나허 그자리에서죽이고 어데로 도망 하엿다는데 이케그사실면밀을듯건대 그는십여년전에 장수 읍내(長水邑內)류석권(柳錫均)과백년가약을매저부부가 되엇든중 그 남편의종제류모(從弟柳某)와 밀접한관계를두고 지내다가 작년춘간에 비밀이 발현되어 본부와 리혼(離婚)하고 친가로와서 의탁하고잇든중 또다시한동리에사는 칠촌외숙 진재현(晋在鉉)(三)이와 관계를 매저 마츰내 생남(生男)하엿슴으로 과부의몸으로 아희를나코 세상이붓그러워 어듸로도망하엿섯는데 이사실을들은 당디경찰서에서는 사면에다 경계망을느리고 지난삼십일에 리리(裡里)에서 체포하야 취조한결과 아희는 자긔집변소에다 무덧다하야 즉시시톄(屍體)를 발견하엿고 범인은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더라(남원)

男便의病고치고저 내몸이酌婦되어
玄海灘건너日本으로 건너갓스나남편마저죽어
【薄命女性金錦伊의身勢】

병마에 걸려신음하는 남편의병을고치기위하야 자긔의 몸을팔아산천이 다른 커-현해란(玄海灘)을건너가작부생활(酌婦生活)을 하며그날그날남편의병낫기만 긔도하고 잇섯스나 가주할 그의운명(運命)은 사랑하는 안해를 맛나보지 못하고철모르는 어린아들 형제를남겨두고 세상을떠나버린 눈물겨운애화(哀話)가잇스니 그주인공은 누구인가?

본적을 경남밀양(慶南密陽)에두고 백장군(白將軍)이란별호를듯는 백재현(白在鉉)(四三)은 본시 빈민촌(貧民村)출생으로 지금으로부터 십여년전에 김금이(金錦伊)(三○)와 결혼하야 아들형제까지 나흔후 닥쳐오는생활난으로정든고향산천을떠나 가지로류리하다가칠팔년전경북대구(慶北大邱)에와서대구로동회원(大邱勞働會員)이되엇스나 보지못한 고두마도를 고진도지며 그안해는남의집품파리를하야 빈궁한생활이나마매우화락하게 그날그날 지내가든중 불행히 백재현은신병마에걸려 병석에누어 신음한지 수삭이되어도 병세는 날로더하고 치료할길은 망연함으로 그안해는 항상눈물로 지내다가 그는 마츰내 결심한후 자긔몸을팔아서라도 병고에신음하는 남편을 구원하리라하야 작년사월경 대판(大阪)모료리점(某料理店)에 작부(酌婦)로칠십원이란금액에 팔리게되엇다 병든남편과 어린 아들형제를 남겨두고 떠나는그정경을 독국적(劇的)장면을일우어 보는사람으로하야금 눈물을 금치못하게하엿스며 몸을팔아서라도 남편의 병을 곳치리라하야 떠나는 그 안해와 매어달려서 어데로 가려느냐고 부르지즈며 우는 어린아희는 참으로 볼수업섯스나 동으로된 사회에 칠십원이란 돈액을주엇스니 가야한다는 로비와함께 대판을 향하야 떠나고말엇다 대판에잇는 김금이는 풍속과 언어가 다른 이국산천(異國山川)에서 멀리고향만 바라보고 남편의 소식만 기다리고 잇섯스나 그의 운명은 웃웃내 커주되고말엇다 그의남편은 지난 십이월이십일경에 사랑하는 안해를 맛나보지못하고 멋번이나 멋번이나부르짓다가 외로히 아들형데를 남겨두고 영원히 도라오지못하는 황천의나그네가 되고말엇다 세상을떠난 그의소식을 대판에 잇는금이에게곳통지하엿스나 엇지된 연고인지 아모 회답이 업슴으로 그동포(同胞)들이 동정하야 장례를 지내엿스며 어린아들 형제는 그의 형이 맛하 기르게되엇다더라(대구)

四氏免訴로放免
求禮事件의
예심에서면소가되엇스나 검사항고로방면못됏다가 檢事抗告棄却된結果

전남구례(求禮)에잇는구례소년동맹(求禮少年同盟)과구례토목공조합(土木工組合)외 형평사구례지부(衡平社支部)간부열두사람은 작년오월에 일부반동분자측과 충돌이생겨 각각상해죄란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예심(光州法院順天支廳豫審)에 회부되어 여러달동안 고생을하다가 동년팔월분에 예심종결이되어 그중림동렬(林東烈)이 한사람만 가래침입으로 공판에 회부되고 남어지열한사람은 전부 무죄판명으로 면소되엇섯스나 일곱사람만이 그당시에석방되고 소년동맹위원 정태근(鄭泰根)토목공 조합위원 박형근(朴炯勤)형평사지부위원김노봉(金正鳳)최삼암(崔三岩)등네사람은 검사의항고(抗告)를당하여 이래팔개월이란 긴세월을순천경찰서류치장에서 지내든바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검사항고가기각되어지난십이월이십칠일에방면출감하엿는데 순천각사회단톄의 환영을 밧고 지난이십구일에 원긔왕성한 몸으로구례로도라와다더라

求禮서도慰勞宴

구례각사회단톄에서는 위로키 위하야구례토목공 조합을 위시하야 각사회단톄인 사의집합으로 이일오후 칠시반경에 신간회구례지회관에서 성대한 위로연이잇섯는데 출감제씨는말하되 한 일면으로 반동분자에 대하야분개하기 비할바 업는동시에 실로 일반사회에나 동지여러분에 대하야 붓그럽고미안한바이며 제반에주의한 주의를불대히 하겟고 압흐로더욱 건실한 활동을하겟다는결심을표하엿다더라(구례)

十萬人이新町에 花代로百萬圓
박람회때문에더욱시세잇서 例年보다收入增加

서울신정(新町)의공창굴에서작년일년동안에 창기 삼백십명이 벌은화대(花代)를보면실로구십만이천칠백칠십오원팔십일전의 거액에달하야 한명평균삼천백오원칠십사전이라하며 또 등루인원(登樓人員)은 구만칠천오백사십륙인이라는데 작년이 이와가티 세월이 조왓든 까닭은 박람회가 잇섯든 세문이라하며 또금년설날의 수입을보면 신정유곽에만 사천칠백원 초이튿날에는 오천삼백 여원의거액에달한다더라

既納稅金을督促
楊口郡森林組合에서 한번내인세금을또내라고

강원도 양구군양구면고대리(江原道楊口郡楊口面高垈里)에 사는최학성(崔學成)의집에서는지난이십오일 오후 두시쯤되어양구군 삼림조합 삼림감수(楊口郡森林組合森林監手)류모(兪某)가 출장하야 소화사년도(昭和四年度)에 부과한조합비를독촉함으로 최학성은 고지서를바든즉시로 십이월 하순경에 양구면서긔 조모(楊口面書記趙某)에게 납부하엿든 긔납세금을 새삼스러히 독촉함으로 긔왕에 바더두엇든 령수증을갓다보이고 긔납한것을 말하여돌려보냇다는데 일반인사는 세금을납부한뒤에 반듯이 령수증을보관하야둘 필요가 잇겟다더라(양구)

京都勞働同胞 新年懇親
성황리에폐회

경도조선 로동조합에서는 경도우리동포로동자를 위하야 재경도조선인 로동자신년위안회(在京都朝鮮人勞働者新年慰安會)라는일홈으로 지난 이일오후칠시부터 시내삼조청년회관(三條靑年會館)에서 박신한(朴新漢)군의 사회로 개최하얏는바 무려 수천명남녀로동자의박수(拍手)와환호성리에서 순서대로진행되엇는데 순서를 마친다음에 연극 현대의련애(現代의戀愛)를공연하엿스며 각디투사(鬪士)제씨의자유등단(自由登壇)으로여러가지결현이잇섯는데 당야동정인사의 씨명은 다음과갓다더라(경도)

楊文秀金五圓 李起燮 金命順女史 朝鮮人禁酒同盟各三圓 朴庚得 魏然俊 洪在權 韓東植 無名氏各一圓 魏潘秀金二圓五十錢 諸萬植 金基東 崔載甲 李秀沃 金道元各五十錢 宋基錫金三圓

廣州勞働夜學

광주(廣州)군퇴촌면이석리에서는유지청년들이부근아동의문맹을퇴치코저 로동야학을 설치하고교수중이라더라(광주)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支那北部에서朝鮮을經하야日本方面에振大되어全部冬季狀態이다全鮮一般이大槪는良好한天氣이며國境地方은零度二十度以下의寒氣이며 明日도續寒

昨日最低溫度氏零下十六度二分 最高同零下六度九分

今朝最低同零下十七度四分

狂奔 【84】
廉想涉 作 安夕影 畵

새계획 (五)

「긴대? 집에잇는 진대말이냐? 그배은망덕하고 뛰어나간 진대말이냐?」

부친은역시 놀라는듯이여정을내이면서 「하하하! 하-」하며 말이 아주그짓말은 아니엇고나!」고 생각하엿다 그러나 그와동시에 진대의 생활고일길한성미르는 감히녀자에게서 손을거둘것갓지안키도하니 재물에 무슨위험을 늣기고슴역 피하야 나간것이나 아닐가하는생각도 드럿다

『배은망덕은 무슨배은망덕이야요 그러나 그런배매한소리를듯고누가잇스랴하겟슴니가!」

경옥이는 점점더 대담스러워졋다 부친이 듯기에도 다른때와달라서 금시로 결혼하겟다하면서 진대의변명을하는것이 얼마쯤은 귀에거슬렷다

『누가 잘햇다고하겟나보아 이런는거냐? 애매한소리는 무슨애매한소리요 도 설사애매한소리라하기로 계집애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입에서나오는대로 이름자를함부로 쓰러다며이면서 쏴고도는 그 말을 누구더러 보라는것이냐? 정방이하구 살지못하면 독신으로산다든년이 엇슨의집이람으기도권에 진대하구 엇재? 보다가도 처음볼일이지 향랑것 종년의자식도 정조라는게 중한줄은 안단다 그것이 시쳐스계집애── 공부하얏다는 계집애의 련애인지 쇄농동인지하는것이냐? ......!」

숙덩이는 이쎄라는듯이 허고 실혼말을 퐁퐁쏘다놋는다 그러나 경옥이는 계모가 바르를떠는양이보기에 자미잇고 도리어 일종의쾌감을 늣긴듯이 입귀를 셀룩하야 대소를하면서 잠잣고안젓다가

『어머니, 그리케 역정을 내실게무어야요 엇뎐 지농가튼 놈이라도 어더딱 기로만 위주로 제마음에만 드는사람이면 사위를 삼겟다고 하셧지요? 그럼 웨 진대는 못쓰겟나는것애요? 우선생도 다니되고 독신생활도 안니된다시니가 그리면 진대씨가 우선생보다는미흡하야도 조켓다는말슴인데 무에잘못이란말슴애요? 그러면 쇠집갈생각만하고잇고 쇠집은 가지말라는말슴이니가?」

경옥이가 진대말을 쓰러내인것은 정말 진대를사모하야 그런것이아니라 다만 이자리에서 계모의부화를돗고 괴롭을려주는것이엇슴 따름이엇다

『듯기틀엿다 어서 나는건너가거라』

부친은 마즈막으로 또한번역정을내엇다

경옥이는 현일인지 계모에게 미하야 시원스럽게 복수를반듯한 유쾌를늣기면서 양관으로 건너왓다 그러나 어제오늘의영과로는 다만 계모가 정방이에게대하야 아조단념하게 할것밧게는 모다 실패에도라간세음이다 이만큼하노흐면 아부엇으로생각하든지 로의에인시는 정방이가지 못하게는되얼다 그리고 진태일을 쓰면 자긔도 것으로서 정방이에게 자긔도 이라고 표가난 정방이에게 다시는 잡념을가지지못하게 된되 단변하야다는표시는 되기는되엿다 하지만은 자긔의새계획은 아즉도 압헤이 캄캄하다

엇잿든 어서 정방이와 만나서 어제오늘일의보고를하고 위선재산을 쓰러내일계책두러 세워야하겟다고 생각하얏다

엇잿든 무슨도리든지 나설것갓다는 희망이 생긴것가타야 경옥이는 마음이 가벼워저서 위선정방이에게 편지를써보앗다

마츰 려관에잇섯다

『자미잇는 일이잇섯세요 정면돌격을 해보앗지요 ......네 려경세요 ......그리고 어머니하군 정면돌격이아니라 정면충돌을 또한번햇서요 하하하 ......그럼 언제? 새로두시? 꼭오서야해요......」

전화는 여긔에서첫다 오후두시만되기를 기다리고 혼자 드러누엇섯다

점심때에 울순이가 무엇을 먹으라느냐고 무트러왓다

경옥이는 거긔에는 대답지안코 자리에서 반기듯이 발딱니러나더니 대ㅅ자곳자

「애 해 울순아! 너 시집안가랴? 너 시집보내줄테니 시집가지?응 가랴?」하고 손을 붓드러흔든다

어런영문을 모르는 울순이는 어리둥절 하면서도 마조우스며

『아씨 별안간 무슨소리세요?」하고 도라서려는다

『정말이다 정말이다 너진대씨한테 다음잇지? 바른대로 말을해라 내 진대씨에게 정식으로 고섭해주마 내란사람은 이세상에 내외서 이여까지아누것도 남에게 조흔일이라고는 못하야보앗다만 이번에 한번 남조흔일을 해보게해주렴으나!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들 성취하게 맷비쓰터매주는것밧게 더조흔일이 이세상에 어데잇겟니!」

경옥이의말에는 롱담가튼쇠도 롱담아닌 열심과 힘이 매처섯다

謹賀新年

端川

北斗日面大新里 公普校職員一同
大新里煙草營業所
大新里酒造場
大新里郵便局
北斗日面職員一同
大新商會

利中面 職員一同
華溪里 辛學先
雲瓦里 李杜哲
星山里 金柄鎬

廣泉面 廣泉酒造場
韓德潤
許鳳俊

004468

何多面 面職員一同
酒造場
姜理煥

汝海津 廉璟燻商舖 電話設特五番 振替京城一○七四六番

端川邑 端川酒造組合酒造場 主任 董亨俊 電話二○番

端川邑 端川公立普通學校
端川郡廳
端川警察署

端川邑 鑿坡 金松竹 鑿坡 全鶴香

端川邑 梁丙南 許道南 金晩洙 金振奎

北斗日面大新里 李煥石 金周雲 李成枝 劉宗博 崔盛天

利中面 吳泰仁 金昌燮 金億仁 韓鳳赫

利中面 沈東洛 沈官翼 崔日仁 金泰淵 金吉淵 李興洙

何多面 光東學校

何多面 崔炳秀 金鶴弼 金明琇 張鏞杓 張極現

汝海津 酒造場 徐東均 李枝煥 金相弼

端川邑 大川樓 電話一七番

端川邑 永春館 太平館

端川邑 金守根商店 金在湜

端川邑 文成印刷所 南大川水利組合 端川金融組合 普天教正教部

端川邑 永生醫院 醫師 朴熙 看護婦 李智惠 權永德 電話七番

利中面 金利洙 金周律

端川驛前 兄弟製菓店 韓致益

廣泉面 韓河潤 金弼雄 金丙翊

何多面 金昌洙 薛孝植 許錫鷺 朴秀鍾 張准杓

福貴面 李昌英 黃在德 張昌逸

福貴面 金百連 金泰成 朴始鴻

福貴面 金琫龍 金子鳳 金昌俊 金霖默 金錫禧 崔宗岐 韓容錄

統營

統營郡守 佐藤德重
統營警察署長 小島孝
統營海東醫院 洪殷濟
統營新町 金永合
統營室洞里 朴性午
統營吉野町 廉鴻烈
統營曙町 金錫哉

纛島

纛島面東纛島里 金永濟
市外安岩里 安泰英
市外上往十里 曹秉俊
市外淸凉里 世一醫院 市外上往十里 世一醫院分院
市外新設里 崇仁釀造所
市外敦岩里 李敬三

高城

高城郡 高城面事務所 職員一同
高城郡長箭港 新北面事務所 職員一同
高城郡烽燧港 魚肥製造 海産物商 朴來潤
高城郡長箭港 新北面 漁業組合
高城郡長箭港 鄭基洙
高城郡長箭港 燒酒釀造 綿絲布木商 金斗益
高城郡外金剛溫井里 東陽旅館
高城郡 高城郡廳 職員一同
高城郡邑內 高城印刷所
高城郡高城面西里 高城酒造組合
高城郡烽燧港 丸林廻漕店
高城郡烽燧港 烽燧酒造組合
高京郡烽燧港 海産物商 崔潤根
高城郡烽燧港 林逢春
高城郡高城面西里 高城釀造所
高城郡長箭港 燒酒釀造 綢緞布木商 崔永福
高城郡長箭港 鰮油肥料製造業 黃雲天商店 電話(三)又三(テン)
高城郡長箭港 海産物問屋並肥料製造業 崔燦鉉商店
高城郡金剛山 大本山 楡岾寺宗務所
高城郡外金剛溫井里 京城旅館主 文明鎭
高城郡外金剛溫井里 剛明寫眞館主 金明元

朝鮮經濟難에 直面하야 (十三)
金解禁에 關聯한 考察
裵 成 龍

五、物價低落의 影響 (續)

六

朝鮮人의 物資를 需給하는 關係가 이러하니 그 騰落의 遲速에 對한 不利는 大部分 朝鮮人에게 歸着되는 것이다 特히 經濟가 地域的으로 構成되고도 그 去來地가 局限한 데에서 獨占의 專權力이 發揮되는 이니 이에 昭和二年 統計數字에 依하야 日本品으로서 移入된 것의 品目과 價額을 살펴보면 (年額 五百萬圓以上者)

米及粟	千八百十萬圓
小麥粉	六百十萬圓
綿絲及打綿	五百九十萬圓
綿織系	六百四十萬圓
各種綿布及시트	二千八百卄萬圓
絹織及毛織物	千二百五十萬圓
고무靴	五百七十萬圓
紙類	六百十萬圓
機械類	八百二十萬圓

이다 그리고 또 對日移出에 對한 그것은 (年額同上)

米豆其他穀類	三千五百萬圓
魚類其他海産物	千五百十萬圓
繭生絲及棉花	二千五十萬圓
肥料	七百十萬圓
鐵鑛	五百十萬圓
牛及牛皮	五百萬圓

等이 이러한 統計數字에 依하야 朝鮮의 生産과 消費에 對한 狀況을 엿볼 수가 잇고 그 物價低落의 影響도 推測할 수가 잇슬 것인가 한다

七

即 朝鮮에서 가장 만히 移入되는 것은 各種綿 絲 毛織物이다 이는 日本産을 原料로 한 製品이 아니라 다 各國輸入品으로서 加工한 것이니 그가 비록 商業輸入品과 가티 急落하지는 안는다 할지라도 對外爲替가 놉하짐을 딸아서 當然히 떠러저야 할 것이오 其他 고무亦 輸入原料이오 機械와 原料가 또한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商品價落도 畢竟에는 떠러지지 아니치는 못할 것이지마는 그가 朝鮮에서는 日本에서보다도 한번 더 자리를 옴기는 것만큼 더 늣게 떠러질 것이다 아직外지도 一般的으로도 돈의 귀한 影響에 依하야 物價가 多少低落을 얏슬 뿐이오 그 對外爲替의 影響은 그다지 나타나지 안는다 그러나 他便으로 移出品 米豆等 農産物은 얼마만큼 低落을 보게 되얏는가 物價의 下落으로 因하야 農産業者가 不利를 被할 것도 事實이지마는 朝鮮의 商業者는 좀더한 不利를 被할 것이오 其他 魚類 藤類에 對한 不利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朝鮮에서 生産하는 것이라도 肥料와 纖維等은 그 濟經에 드는 바가 잇스니 이는 日本人企業家의 獨占的 販賣에 依하야 도리혀 그 損失을 消費者들에게 轉嫁하도록 統制하고 잇는 까닭이다 그럼으로 朝鮮의 商品價格은 投機氣分에 弄絡되는 것이다 農産品이 이 投機的 市勢에 依하야 暴落하는 때에 必須的 依存한 의 支出인 모든 稅金을 依然히 强要하니 結局 消費品價가 떠러지지 안코 生産品價가 떠러젓나 收入은 주러첫슴에 比하야 支出이 依然한 것은 그 支出比率의 二割以上의 增大를 意味할 것이니 이러한 二重三重의 不利는 商品이 他生産者에게서 또는 生産者에게로 드러올 때에 消費者에게서 他消費者에게로 옴겨갈 때에 避하지 못하는 것이 朝鮮人의 今日의 處地이오 또 一般企業的 方面에서 無能力한 農村이 倒壞할 것과 가티 中農者도 또한 破壞에 빠진 것이 今日의 現狀이다 物價에 對한 政策이 確立되지 못하고 他方面에 依支하야 取하는 것은 經濟的 弱者에게 한층더 不利를 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업는 것이다

停止할줄몰으는 銀塊慘落에 大恐慌
倒産者가 벌서 廿二店이라고
上海市場人心洶洶

(上海六日發) 世界的 銀供給過剩은 銀市勢의 大暴落을 出現하야 아직도 그의 停止할 줄을 모르는 形便인데 對日爲替는 이로 因하야 今朝에 一兩二兩에 갓가운 變動이 잇다 洪城銀行은 建値를 九七兩四分三에서 九九兩四分三으로 變更하고 一方 金塊市場은 七三兩二匁로 低下하얏스나 다시 七七兩五匁으로 急騰하야 驚異할 만한 場面을 現出하얏다 正午에 至하야 洪城銀行은 建値를 다시 變更하야 對日百兩四分一로 引上하고 市場은 더욱 恐怖狀態에 至하야 金然當買가 업섯다 그럼으로 中國人投機側에는 多數한 破綻者가 續出할 것을 豫想하는 바 現在에 判明된 것은 二十二店에 不過하나 但 金塊의 半後市場도 아직 落勢를 繼續하고 잇스니 如何한 狀態를 惹起할는지 몰라 人心은 洶洶한 中이라 더라

上海銀市勢의 暴落된 原因
日本에 影響도 莫大

(東京電) 五日發海外電報에 依하면 舊臘來 低落의 趨勢를 繼續하든 銀塊市勢는 前電에 比하야 十六分七厘의 二十片十六分十五라는 有史以來의 新低價를 演出하얏다 六日 上海에서의 入電에 依하면 아직도 低落을 繼續하고 다시 低價의 新記錄을 作하는 形勢이다 이러케 銀塊市勢의 低落에 伴하야 上海金票는 暴騰하얏다 六日午前의 情勢에 依하면 最高 四百八十七兩 最低 四百七十二兩을 示하야 四百八十四兩三匁에 止하얏다 上海對日爲替는 固定되엇스나 右金票市勢로 測出하면 結局 百兩을 突破하기를 一兩內外이나 하엿다 上海市場은 倒産者의 續出을 危懼하야 恐怖狀態를 現出하려 하는데 이 다 銀塊暴落의 理由에 對하야는 遠因으로는

一、印度의 幣制改革으로 不用하게 된 古銀의 在品이 市場을 壓迫하게 된 것

一、歐洲의 新興國이 幣制를 確立하야 此方面에서 銀의 需要가 激減된 것

一、銅의 副産物임으로 生産上 適當한 供給을 調節할 方法이 업는 것

等을 擧하고 近因으로는 中國의 投機側에서 舊正月의 需要를 豫想하고 買入하얏슴에 不拘하고 아주 豫想에 反함으로 急히 究, 勞又는 圓으로 換替하려는 傾向을 讓致한 것이다 今後 觀測에 對하야는 豫想할 만한 計劃이 殆無하고 또 大勢도 軟弱材料가 多함으로 거의 豫測할 수 업는 狀態이다 此가 日本經濟界에 及하는 影響에 對하야는 直接에 中貿易上의 打擊이니 年初來 殆히 商談이 不可能한 狀態에 至하며 다시 延하야는 貿易會社의 株式等에도 波及하는 모양이니 金解禁의 實行을 數日後에 두고 잇는 그 進行은 自못 注目된다 더라

米粟輸移出入
‖ 十二月中의 米及粟輸移出入高는 左와 如하더라 (單位石)

◇米輸移出高

	(本年)	(前年)
十二月中	九三一、四六四	一、〇〇四、七七九
十一月以來累計	一、八〇五、八四五	一、六六六、六六四

◇米輸移入高

	(本年)	(前年)
十二月中	三七、三四四	三六、九三三
十一月以來累計	六六、八〇一	七〇、九三四

◇粟輸移入高

	(本年)	(前年)
十二月中	六八、二一八	九一、四〇六
十一月以來累計	一四四、六八六	一三六、三〇八

昨年各銀 下期業績
配當据置內定

當市內銀行의 昨年下期業績은 大體左와 如하야 前年同期와 大差가 업고 配當은 다 据置하기로 內定하얏더라

◇漢城銀行 ‖ 十日重役會의 結果를 보지 아니하면 內容은 不明하나 大體 前期의 純益 六萬一千圓과 大差가 업슬 것이오 前期의 繰越 一萬四千圓을 考慮한 後에 法定準備金 七千圓 別途積立

◇海東銀行 ‖ 總利益 三萬六千六百七圓 中 三萬四千四百九十四圓이 銷却되엇슴으로 純利益은 二千百十三圓인데 前期繰越 九千九百五十七圓을 加하야 一萬二千七十圓을 繰越하는 바 今期도 依然 無配로 內定하얏고 來年度부터 配當復活이 可能할 듯 하며 二十一日 午後三時에 株主總會를 開催할 豫定

◇貯蓄銀 ‖ 純利益이 六萬九千八百圓인데 豫定과 가티 八分配當이 可能하리라 더라

◇殖銀 ‖ 純益이 百四十九萬三千六百二十七圓으로 前期에 比하면 十六萬三千四十圓이 增加인데 一分增配는 可能하나 配當은 依然 据置로 內定하얏더라

◇商業銀行 ‖ 純益이 十七萬八千圓으로 前年同期와 差가 업고 別로 今期는 二十萬五千圓을 銷却하얏스나 期末預金이 二千九百四十七萬八千餘圓 貸出이 三千四百四十六萬二千餘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預金 四十一萬餘圓 貸出 十四萬餘圓이 各 增加하얏고 配當은 六分据置 株主總會는

農事改良低資 春期配定額決定
◇…總額七百五十五萬圓

昭和五年度의 農事改良低利資金 春期配定額은 總額 七百五十五萬圓(東拓一般貸付 二百九十萬圓、東拓自己借受 百三十六萬三千圓、殖銀 三百二十八萬八千圓)으로 各道別은 左와 如히 決定하얏더라 (單位千圓)

	(東拓)	(殖銀)
京畿道	一六七	四二〇
忠北道	一三〇	二六五
忠南道	[illegible]五	一三四
全北道	三六五	二三四
全南道	六五四	三五〇
慶北道	六六九	一五
慶南道	二四五	三二三
黃海道	三三二	四一八
平南道	三〇七	五〇
平北道	七七五	二〇五
江原道	四八	三〇〇
咸南道	二〇三	四〇〇
咸北道	—	—
計	四、[illegible]五	三、二八八

金解禁初年과 絹織物의 前途觀
繰短其他로 下支될 듯
◇大昌貿易會社長 白樂元氏 談

日本의 金解禁과 同時에 絹織界의 趨勢를 一考하건대 日本의 金解禁이 된 것이 實施되면 朝鮮經濟界에 悉歷되어 잇는 만큼 日本그것에 附隨하는 關係上 日本財界의 重大問題는 即 朝鮮財界에도 重大한 影響이 일어나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면 日本이 年來의 重大한 宿題이든 金解禁問題를 解決하는 第一步를 내드듸든 客年暮에 此解禁期를 發表하기 前外지는 그 影響이 重大할 것을 豫想하고 此에 伴한 物價低落을 極度로 恐怖케 되어 多量의 商品을 手持하얏든 者는 爭先投賣하기 때문에 人絹織物界의 市勢에 일으러서는 全然 採算을 無視한 低價로 暴落하야 實로 前無後無의 新低價가 出現하얏섯다 그러나 이 時價로는 産地各機業家로서의 打擊이 莫大하야 繼續作業을 할 수 업서서 마츰내 日本各主産地인 桐生、福井、金澤、小松等 朝鮮爲主의 工場은 一齊히 一個月餘의 操短을 斷行하야 此等 投賣를 防止하고 時價를 安定하얏다 元來 金解禁實行은 爲替를 安定케 하야 國內産業을 助長하고 貿易을 振興케 하는 根本目的이 잇슴으로 今後 處理를 妥當히 한다면 決코 昨年과 가튼 急落은 업겟고 또 不景氣도 襲來할 理가 업슬 것 가트며 極度의 警戒와 生産調節의 結果로 需要期에 臨하야는 消化가 順調로 轉換케 될 것이다 然이나 年末에도 多少 諸行動이 奏効하야 反騰의 强合을 呈하야 越年하얏슴으로 보더라도 알 수가 잇다 그럼으로 金解禁後라도 이 가튼 行動으로 沈着着實히 나아간다면 客年 그때와 가티 無理한 時勢가 再現될 理가 萬無하겟다고 볼 수 잇는 同時에 數個月을 沈滯하든 織物界도 完全히 底入한 後임으로 新年과 더부러 更新氣分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으드로 더한 마듸하야 둘 것은 아모조록 終始一貫한 覺悟로 善處하기를 비리는 바이다

外國鹽輸入高
依然漸減狀態

二十八日頃豫定

昨十一月中 朝鮮內에 輸入된 外國鹽은 極히 少量의 米國及英國食鹽外 天日鹽으로서는 關東州鹽과 山東省鹽만으로 數量 七百九十六萬九千斤 價格 五萬一千四百圓에 不過하야 前年同期에 比하야 實로 一千九十萬斤의 激減으로 步合은 約六割減이다 그리고 各稅關別로 하면 釜山稅關管內 十七萬八千斤 價格 一千三百三十圓 仁川管內 七百十四萬二千斤 四萬五千七百二十圓 新義州管內 六十四萬九千斤 四千三百二十圓이오 또 一月以來의 累計는 二億一千七百九十七萬斤의 二十一萬九千圓으로 前年同期間 輸入額보다 約五千萬斤의 減少를 示하얏다 前三個年의 輸入을 比較하면 如左하더라

	十一月中 (千斤)	自一月至十一月累計 (千斤)
昭和四年	七、九六九	二一七、九七一
昭和三年	一八、八六三	二六九、[illegible]
昭和二年	二三、二三六	二三五、一三五
昭和元年	一四、一三二	二六一、五六一

東京市中 都賣物價
二步九厘低下

(東京電) 日銀調査에 依하면 十二月中의 東京市中의 都賣物價는 調査品目 五十六品中 騰貴 一品 低落 四十三品 無變動 十二品이니 그 平均指數는 二〇六、九六을 示하야 十一月 그에 比하면 二步九厘의 低落이라 더라

開原特產在高

(開原) 開原市內 昭和四年

…末에 比하면 二十三萬九千六十石 減少이다 滿鐵驛 十二月末 在貨는 大豆 七車(前月末에 比하면 二車減、前年同期에 比하면 十八車減) 高粱 一車(前月末에 比하면 一車減、前年同期不變) 雜穀 三車(前月末에 比하면 二車增、前年同期에 比하면 二車減少)이라 더라

改正運賃 假實施
二月一日부터

本年四月一日부터 改正實施될 鐵道局貨物運賃은 一月六日부터 十日外지 小口扱을 二十五日外지 車扱을 各各 假實施하고 此에 依한 바 鐵道局의 減收를 調査하게 되엇는데 그 假實施後 局으로서의 決定案을 作製하야 運輸委員會에 諮問하야 決定하게 되리라 더라

仁取取引店 過年成績褒彰

仁取市場은 昨年에 依하야 四日午前九時부터 新市場을 開하엿는 데 定刻에 現狀仁取社長의 年頭挨拶로 開會하야 金秉默氏의 式辭가 잇슨 後 過去一年間 各店褒彰式이 잇섯는 바 그 等級은 左記와 如하다

◇出來高 ▲一等 (和)取引店 ▲二等 (和)取引店 ▲三等 (和)取引店 ▲四等 (丸)取引店 ▲五等 (正)取引店

◇受渡高 ▲一等 (丸)取引店 ▲二等 (和)取引店 ▲三等 (丸)取引店

勤續店員褒彰
十、五年勤續

新春初立會를 際하야 仁取取引員組合에서는 各店員褒彰式을 擧行하얏는데 그 氏名을 紹介하면 左記와 如하더라

◇十年勤續 ▲(和)家丹矢一郞 ▲(丸)本鄕忠良 ▲(丸)菊池昌寬 ▲(丸)吉村榮右德

◇五年勤續 ▲(丸)福德秀 ▲(丸)張時燦 ▲(丸)〇 門 ▲(和)趙內哲 ▲(丸)郭允鎔 ▲(丸)李光周 ▲(丸)郭宗勳 ▲(丸)增田孝平 ▲(丸)樂濟德 ▲金川吉 ▲(丸)金昌協

(一針界)

▲日本의 政黨으로 一九二九年에는 相當한 波瀾曲折을 財界에 보이키 때문에 實로 一針者도 눈코뜰 사이업시 紛忙한 中에 舊年을 보냇것다 ▲더구나 朝鮮人에게는 猛烈한 ...의 餘弊 또는 不景氣의 威脅、緊縮政策의 大打擊等으로 破産者 倒産者가 續出하는 客年을 보내고 新年을 마지니 ▲지금 안팩이 지난 一年을 回顧하면 ... ▲新年에는 果然 어떠한 波瀾이 또 우리 財界에 닥처 오라는지? 오족 一針子 생각한 바를 ... 모든 것의 是是非非를 解剖하라고 기다리는 바이다 ▲아모조록 諸의 鬪爭이 바름에 될니지 안키를 바라는 바이다

株式 臺割 結局
市勢와 商況 (七日)

前場小波瀾
今朝 前場은 續續低軟의 勢로 小波瀾이 잇섯는 바 東新은 百圓五十錢寄後 一圓七十錢外지의 低價가 잇슨 後 一圓七十錢으로 小戾하고 大新은 無商內로 京取는 十八圓七十錢步로 五、六十錢에서 往來하다가 七十錢으로 大引되엇더라

前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暴落
東新百圓臺割 大新五十三圓
後場은 다시 大慘落을 演하야 東新은 百圓臺를 下割하야 東新百一圓丁寄後 九十八圓七十錢外지 暴落하얏다가 六十錢大引이고 大新은 五十四圓五十錢步로 三圓八十錢大引이오 京取는 十八圓六十錢步一大이더라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京取乘勝長驅
積極買煽엔 一考

京取는 今朝에 또다시 十八圓七十錢外지 上乘하야 新東其他 低落을 外視하고 活躍하야 乘勝長驅하는 氣勢인데 이에 對하야 一部에서는 新東其他諸株가 不良함에 不拘하고 高買煽하는 것은 不可하다 하며 … 京取가 비록 無配인데다가 業績이 不良하다고 하더래도 … 大勢로는 決코 二十圓以下의 低位를 買할 것이 不可한 것은 아니라고 하야 … 注意할 것은 너머 騷買로 買煽을 하야 … 京取의 買占이 無理한 것이 아니라고 보겟더라

相場去益不良
解禁、解散風에

散漫의 解禁時代를 再次 演出하게 된 現下 相場은 逐日 不良하야 드듸어 新東은 百圓臺下에外지 肉薄하는 形勢로 外지 일으러 今朝는 百圓二十錢(當所) 大阪은 百圓六十錢이라는 低價가 잇섯는 바 如此히 新春에 至하야 人氣가 年末보다도 不良케 되는 것은 新株는 모다 떠러질 만큼 떠러지게 슴에 不拘하고 獨高的 態度를 取하얏든 新東에 買氣가 新加된 것과 또는 金解禁實施가 五日

仲買店廢業
金潤秀氏

오래동안 京取仲買人으로 斯界에서 活躍하든 金潤秀氏는 商業上 新計劃으로 適當코자 하야 客年秋早터 內容으로는 南相落氏에게 同仲買店을 讓渡하기로 契約을 締結하고 正式廢業은 아니하얏든 바 今般 兩氏는 正式으로 引繼를 하얏슴으로 金氏는 七日부터 正式으로 廢業하얏다 더라

大新意外堅實

新東、新東其他가 低落에 低落을 거듭하는 中에도 …

期米 底迷 狀態

前場小堅
昨後場의 反動으로 當市場은 今朝 二十七圓四十二錢에 寄한 後 地場 二十九錢 … 五圓 二十錢 … 一錢인 五丁低落 …

後場小堅
後場은 小堅하야 … 十五圓三十六錢에 寄付後 四十四錢外지 上伸하얏다가 二十九錢으로 止하야 … 의 差十六丁이더라

阪仁縮鞘로 安心買는 不能

阪仁의 鞘가 今朝에 百九十二丁外지 縮少되얏든 … 百四十丁 … 百三十丁은 擴鞘의 餘地가 잇스며 … 反面의 買方은 …

新春發會後 低落一巡乎

新春發會價인 二十五圓八十錢을 最高로 五圓十二錢外지 急轉直下하야 五圓二十錢臺에서 一息狀態를 呈한 當地相場은 依然 … 低落相場은 一巡한 셈이다

米正 低迷不動

◇仁川保合 ‖ … 期米低迷로 人氣는 不振이나 …

◇群山不變 ‖ … 四等二十四圓四十錢 …

◇釜山軟弱 ‖ 今朝는 … 四十錢 … 二十五圓五錢 … 一千二百十八叺 …

米正餘話 …

京取短期寄引 (七日)
[illegible]

大阪短期步調
[illegible]

主要株取組
[illegible]

海外經濟 (七日)
[illegible]

仁川期米 (七日)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釜山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京城綿糸布時勢
[illegible]

大阪短期大引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illegible]

大阪長期寄引
[illegible]

代引新定日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朝鮮銀行券 (七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日本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滿洲各地商況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고무原料市勢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延取
[illegible]

各限後合
[illegible]

謹賀新年

烏致院

燕岐郡鳥致院面金川里 金剛道本部

烏致院郭町大昌號 李重淳

烏致院驛前 米穀貿易商 尹晩榮

烏致院市場 朝鮮運送店 延秉九

烏致院驛前 醸造商 李鍾晃

烏致院驛前 米穀商 許 濬

烏致院本町通 綢緞布木及雜貨商 李俊文

大邱

大邱勞働會 會長 金光瑞 副會長 金學三 電話一二九〇番

大邱前町 辯護士 辨理士 孫致殷 電話四八一番

柳廷洛

李德化

大邱漆谷郡架山 朴進夏

達城郡城北面西邊洞酒造場 李柄琦

達城 具康書

漆谷郡東明面事務所

吉林總領事館 總領事 石射猪太郎

碧潼

碧潼雲時公立普通學校 楊殷植

碧潼雲時公立普通學校 明錫律

碧潼雲時面雲下洞 金宅洪

碧潼雲時面雲下洞 郭化泰

碧潼雲時面雲下洞 金〇河

碧潼雲時面雲下洞 尹京魯

碧潼雲時面思淸醫院 白承爕

碧潼雲時公立普通學校 崔錫德

碧潼雲時面事務所 職員一同

碧潼大平面事務所 職員一同

碧潼吉北面事務所 金錫麟

碧潼松西面事務所 崔泉模

碧潼松西面六西洞 崔顯柱

碧潼松西面松西洞 崔錫擧

吉林

吉林總領事館 工藤正次

滿洲長春日本橋通 鷄林醫院 董昌鉉

滿洲長春三笠町三丁目 和洋諸帳簿 一般印刷業 三省製本所 電話一三三四番

滿洲里線安達站五道街二 朴永國

滿洲長春 東亞日報社長春支局 朝鮮日報社北滿總支社 金利三